

심원 송복 교수의 생애, 가치지향, 그리고 학문

정학섭*

[논문요약]

송복(宋復) 교수(1937~)는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동양 고전을 공부하였고,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호는 심원(心遠)이다.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5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2년 정년 퇴임하였다. 11권의 단독 저서와 8권의 편저, 3권의 역서, 수백 편의 논문과 칼럼을 펴내고 생산하였다. 그는 문사철(文史哲)에 기반하여 연구와 강의, 저술 활동을 하면서 부인과 함께 두 번의 서예전을 열고, 동호인들과 당시서예전을 개최하여 서예가로서 ‘즐거움과 즐거움’의 지평을 열기도 했다.

한국사회 구조변동과 변혁의 와중(渦中)에서 송복 교수는 결연한 태도와 정직한 자세로 문명 비평의 선봉에 서왔다. 인문학적 고뇌와 철학 사상적 풍부성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사회 공론장에서 그는 인문학적 성찰과 지평을 심화 확대시켜 왔다. 오늘날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들이 판치고 정파성이 난무(亂舞)하는 공론장’에서 그는 학자와 파수꾼의 소명을 다해 왔다. 존경받는 원로의 떳떳함과 사의재(四宜齋)와도 같은 마땅함을 지향하고 실천해 왔다.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해안과 총체적 분석력을 갖춘 인텔리겐차의 힘’을 지니고 진정한 진리 탐구와 지혜의 회복을 위해 진력해 오기도 했다.

송복 교수는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를 통해 인(仁), 덕(德), 효(孝), 예(禮), 군자(선비) 등 유학의 핵심 개념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해석하고, 그 사회학적 함의를 새롭게 풀이하였다. 동양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근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접합되고 통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탐구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만남』 등과

* 저자: 정학섭(사회학, 전북대 명예교수)

같은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의 성격을 사회과학적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국난극복의 지도자, 서애 류성룡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위대성을 크게 평가했다. 『징비록』 등 그 저술들의 핵심은 ‘선대의 전철을 철저히 징계하고 후대의 후환을 철저히 경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핵심 요체는 바로 ‘자강’으로서, ‘우리가 날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이라고 결론짓기도 했다. 수많은 칼럼 등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특혜와 책임’을 한국사회 선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특혜와 책임』이란 저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서애학회를 창립하고 학술지 『서애연구』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징비(懲毖) 철학과 정신에 기초한 『징비포럼』 출범에 관여하고 있다.

주제어: 송복 교수, 동양적 가치 연구, 위대한 만남, 특혜와 책임, 류성룡 리더십, 중용리더십, 서예가

I. 송복 교수, 삶의 궤적을 찾아서

심원 송복 선생께서 즐겨 외고 서예로도 써셨던 두보의 시, ‘여야 서회(旅夜書懷)’. 송복 교수를 떠올리며 이 글을 시작하니 문득 이 시가 돌이켜 떠오른다.

“언덕의 작은 풀 미풍에 나부낄새	細草微風岸
높은 돛단배 홀로 밤을 지새네.	危檣獨夜舟
넓은 들판에 별들 얹어 펼쳤고	星垂平野闊
흐르는 강물에 달이 출렁이노라.	月湧大江流
내 어찌 글로 이름을 낼손가마는	名豈文章著
늙고 병들어 벼슬마저 내놓았으니.	官因老病休
표연히 떠도는 이 신세	飄飄何所似
천지간의 갈매기와 같고나. “	天地一沙鷗

송복 선생께서 2006년 4월 당시서회(唐詩書會) 동인들과 함께 당 시서예전을 열었다.¹⁾ 그는 시(詩)와 서(書)가 하나로 일체하는 곳이 바로 당시(唐詩)의 세계라고 주장한다. 『논어』에서 말하는 시의 세계는 흥(興), 관(觀), 군(群), 원(怨) 이 네 가지라고 정리한다.

“흥(興)은 감흥 감동의 세계다. 오늘날 말하는 high-touch, 고감도정서다. 흥은 가슴을 ‘신선하게’ 해서 머리를 fresh하게 하는 흥취의 원류다. 관(觀)은 관찰 응시의 세계다. 관찰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시선을 모아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내면 세계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정관이고, 빛이 사물을 비추듯 냉정한 마음으로 사물이든 세상이든 비춰보는 것, 그것이 관조다. 관은 이 모두를 말한다. 군(群)은 어울

1) 唐詩書會 제 2회 唐詩書藝展(2006, 4. 26-5.2, 세종문화회관) 도록.

림, 화락(和樂)의 세계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나 혼자서는 살지 못한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다. 이 존재는 독존적이면서 동시에 공시적(共時的)인 존재다. 사람은 독존하면서 자기 특유성을 만들고, 공존하면서 공동체를 이룬다. 이 나 안과 이 나 밖이 함께 하면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군(群)은 남과 같은 나이면서 남과 다른 나를 이루는 정체성의 터전이다. 원(怨)은 분심(忿心) 비판의 세계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분노가 있고, 누구나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 원통한 마음을 조절하면서 분노하고, 그 분노하는 마음을 조절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원(怨)이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시로 탈바꿈한 비판의 소리, 이 원을 경계하는 것이다. 당시(唐詩)는 이 4개의 세계가 충돌해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번에도 당시를 외면서 흥취에 젖고 그 젖은 흥취가 붓으로 묵향으로 종이에 벤 것을 모아 서예전을 연다. 이 서예전은 그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길게 인용하였다. 이 짧은 글에 송복 선생의 사회학적 인간관과 사회관, 문학예술관이 응축돼 있다. 공자께서도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何莫學夫詩)’며 위의 네 가지를 들지 않았던가. 여기서 우리는 이들 당시사회에 ‘정신과 흥취의 일어남을 모두 스스로 한다(精神興會則人人所自致)’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서예 정신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복(宋復, 1937~) 교수의 호는 심원(心遠)이다.²⁾ 예당(禮堂), 수령(水嶺)을 사용하기도 했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월정(月亭) 하경희(河慶姬, 본관 晉州)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셨다. 장남은 송재환 교수, 차남은 송재운 교수이다. 부친 송상을(宋相乙, 1903~1981)님과 모친 허정주(許貞株, 1907~1987)님 사이에서 1937년(정축년, 소의

2) 이 글에서는 송복 교수, 송복 선생, 심원 선생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해)에 태어났다. 고향은 경남 김해군 진례면 담안리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한 지역이며, 마을 근처 동네가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이라고 한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증조부께서 1836년생으로 진사를 하셨다. 할아버지와 큰 할아버지가 진사를 하셔서 일제 말기 마을에 서당을 세웠고, 그 서당에서 학동들 틈에 끼여 한문을 배웠다. 송복 선생은 “그 일제 시대 학교에 들어가기 전 나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할아버지 서당이며, 사랑방에서 살았다. 살았다 기보다는 할아버지 말을 듣고 할아버지 숨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 방에서 놀았다. (...중략) 그들에 비하면 어리디 어린 나는 그 할아버지 서당이며 사랑방에서 그들 열에 끼어, 같이 배웠다기 보다는 주위들은 것이다. 그야말로 ‘서당개도 3년이면 능히 시가를 읊는다(齋狗三年能風月)’ 하는 식이었다. 그것이 훗날 내 일생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고, 내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³⁾고 회고한다. 처음에 『소학』, 『천자문』을 배웠고 나아가 4서(書)를 배웠다. 어릴 때, “소학을 배우면 다 배우는 것이다. 한훤당 김굉필이 소학동자였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소학』 속에 다 들어있구나.”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송복 교수는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6년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정치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1959년 9월, 월간 「사상계」의 전국 대학생 논문현상 모집에 ‘한국 지식인의 사명’이란 글로 당선됐고, 졸업하기 전 사상계 기자로 발탁됐다.⁵⁾ 1960년 대학 졸업 이후 언론사 기자의 길을 걸었고⁶⁾ 그 과정에서

3) 송복 2022, “송복 자전적 에세이: 중용과 천명”, 철학과 현실, 182-83쪽.

4) 『사회사상과 문화』(동양사회사상학회, 2013.9.30.일자 발간 ‘혜안과 논찬’ 송복 교수 특집용) 인터뷰 참조.

5) 조선일보 2021.12.14. “문정부, 87년 이후 가장 후진적 정권...법치 아닌 인치: ‘한우물 선비’ 인생,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송의달이 만난 사람)” 인터뷰 기사 참조.

6) 1960년대 초반 송복 교수가 사상계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사상계』 출판 부수

4.19 혁명 시위과정을 취재하기도 했으며 국방대학원에 출입하기도 했다. 송복 교수의 서울대 학부 졸업 이후 첫 출발은 저널리즘(journalism)과의 만남이었던 셈이다. 취재차 드나들었던 국방대학원에서 청강을 해보니 미국에서 훈련받은 영관급들이 주로 강의하고 있었는데, 서울대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최신 이론과 내용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미국은 해방 이후 한국 장교 1만 6천 명 정도를 미국에 데려가 교육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미국에서 교육받고 귀국한 장교 출신 젊은 교수들과 일제 치하 일본식 교육과 사유체제로 훈련되었던 서울대 교수들과는 그 수업 내용이 질적으로 엄청나게 달랐다는 것이다. 그 당시 저개발국가 중에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송복 교수는 ‘우리 나라도 군인들이 곧 들고 일어나 쿠데타가 발생하겠구나’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하여튼 그는 1961년 5월 6일 사병(士兵)으로 입대(入隊)하여 35개월 간 복무한 뒤 하사로 제대(除隊)했다. 전역(轉役)하여 『청맥』이란 저널을 창간하여 3년 동안 운영했고, 서울신문 외신부 차장으로 발탁되어 활동하다가 1971년 도미(渡美) 유학길에 올랐다. 그 사이 1968년부터 2년 동안 서울대 신문대학원에서 석사를 했고, 1971년부터 2년간 미국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3년간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3년 1월부터 1년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서 연구활동을 했고, 이곳에서 그 당시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이진규 교수를 만났다고 한다.⁷⁾ 1992년 8월부터

가 8만부 정도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발행 부수가 8만부 정도였으니, 학술지와 논평지를 곁꿨던 이념지로서 『사상계』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7) ‘송복과 이진규’ 두 사람의 만남은 1983년 첫만남 이후 2023년 9월 현재까지 40년 동안 ‘바늘과 실’처럼 동지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사)미래인력연구원 설립, 서애학회의 창립 등에 이어 정비연구회(‘정비포럼’) 창립을 목전(目前)에 두고 있다.

1년간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연구년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하와이대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1년 동안 서울신문 외 신부에서 봉사했다. 1975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2002년까지 사회학과 교수로 봉직했다. 2002년 8월 정년 퇴임후 연세대 석좌교수로 특별 초빙돼 8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더 가르쳤다. 그는 평생 동안 외부의 관직 제의는 물론 교내 보직까지 모두 사양하고 ‘연구와 강의, 글쓰기와 강연’에 힘써 왔다. 박영식 연세대 총장 시절(1988-1992), 그를 부총장에 임명했으나 몇 달 동안 부총장실로 출근하지 않자 임명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송복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두 차례나 장관으로 발탁하고자 했으나 그가 끝내 고사했던 일화는 지인들 사이에 회자(膾炙)되어 왔다. 그의 이같은 지향과 행위를 두고, ‘한 우물 파기’ 정신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기도 한다. 그럴듯한 대학 보직과 정부의 장관 자리마저 말지 않아왔던 그였지만, 위기에 처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만 80세이던 2017년 1월의 일로서, 연구와 강의, 글쓰기라는 ‘한 우물 파기’의 선비적 학자 정신이 행동하는 ‘실천적 지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다.

송복 교수의 단독 저서는 『조직과 권력』(전예원, 198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나남/경문사, 1990/1997), 『열린 사회와 보수』(조선일보사, 1995),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생각의 나무/지식마당, 1999/2003),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지식마당, 2007), 『일류의 논리』(조갑제닷컴, 2011), 『조선은 왜 망했나』(일곡문화재단, 2011),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2014, 가디언), 『리더십 인문학: 사회과학의 지평』(시대정신, 2015), 『특혜와 책임』(가디언, 2016), 『중용(中庸) 그리고 천명(天命)』(철학과 현실사, 2023 출간 예정) 등 11권이다. 편저는 『사회불평등 기능론』(전예원, 1984), 『사회불평등 갈등론』(전

예원, 1986), 『불세비키 혁명』(법문사, 1989), 『제2의 베트남』(미래인력연구센터, 1996), 『저서를 통해 본 이승만의 정치사상과 현실인식』(연세대 출판부, 2011), 『통합: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북오션, 2013),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공편, 법문사, 2019), 『Modern Korean Society: Its Development and Prospect』(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2006) 등 8권이다. 번역서는 『성숙한 사회』(탐구당, 1976), 『도시사회학』(을유문화사, 1977),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청계연구소/한국학술정보, 1990/2002) 등 3권이다.

송복 교수의 학술 논문은 “Emile Durkheim: His Theoretical Position on Community as His Theoretical Framework”(인문과학 31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4), “공공조직에 있어 평형성(Equilibrium)에 관한 연구”(연세논총, 연세대대학원, 1977), “현대 정치사회와 예의 기능”(합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 재북미 한국인정치학자대회, 1981), “권력집중화의 사회구조적 요인”(한국사회학 19집, 한국사회학회, 1985), “지역갈등의 구조적 요인”(한국정치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편. 법문사, 1989), “양반체계의 지배지속성: 중인계급의 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사회계층-이론과 실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다산출판사, 1991), “한국사회의 변화와 유학의 기능”(공자사상의 발견, 윤사순 외. 민음사, 1992), “효사상과 사회발전”(효사상과 미래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 갈등. 통합의 주체자로서의 고위직층”(형성과 창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또 하나의 지향상으로서의 선비 연구”(전통과 현대, 1998), “햇머니 사회의 출현과 적응”(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1998),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한국사시민강좌, 한국 국민에게 고함. 기파랑, 2002), “리더십의 원류: 왜 인문학인가”(시대정신 62호 봄, 2014), “인문학의 요체: 리더십 출사표”(시대정신 66호 봄, 2015), “서애정신이란 무엇인가”(서애연구 1권, 서애학회, 2020), “류성룡의 중용 리더

십”(서애연구 2권, 서애학회, 2020), “자유와 귀의-류성룡의 시심에서 읽다 (1) (2) (3)”(서애연구 3권, 4권, 5권, 서애학회, 2020, 2021, 2022) 등 수백 편에 이른다. 그 주제 또한 다양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II. 송복 교수의 문사철(文史哲): 인식과 실행

송복 교수는 그야말로 하나의 방대하고 아름다운 도서관이자 박물관이다. 그 속에 동서양의 엄청난 고전과 근현대 저작들이 정제(精製)돼 있다. 그는 중국의 고전, 『설원(說苑)』 『국어(國語)』 『고문진보(古文眞寶)』 『춘추(春秋)』 『사기(史記)』 『자치통감(資治通鑑)』처럼 그 내부에 정치(精緻)한 문사철(文史哲)을 품고 있다. 실로 거대한 학문과 예술의 산맥이요 온갖 금은보화의 보고(寶庫)이자 유장(流長)한 강이나 광활한 바다와도 같다. 이제 그 산을 오르고 물길을 따라 심원(心遠) 선생 문사철의 세계로 나아가 보자. 그는 2023년 2월 24일의 인터뷰에서, 그의 저술, 저작의 기초는 인문학적 지평 위에서 이루어졌고,⁸⁾ 그 토대 위에서 사회학 내지 사회과학 공부와 연구를 해왔다고 했다. 인문학적 지평(地平, 地=근간이며 平=전망), 문사철은 세 가지 공장의 함의(implication)를 지니고 있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문학, 시와 소설은 ‘언어(말)의 공장’이다. 역사는 ‘경험의 공장(工場)’으로서 통찰과 성찰의 언어체계이다. 철학은 ‘사유(생각)의 공장’으로서 사유의 언어 체계이며 자기 자신을 객

8) 송복 교수는 아직도 만년필로 원고지에 직접 글쓰기를 한다. 지금까지 몽블랑 만년필 11자루를 마모시켰고, 지금은 12자루째 사용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가 만년에 벗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밀창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고 술회한 적이 있는데, 심원 선생의 만년필을 떠올리며 건주어 보게 한다.

관화시킨다.”⁹⁾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학 내지 사회과학자가 되려면 시·소설 300권, 역사책(고전과 근대) 200권, 철학 서적 100권은 최소한 정독해야 한다고 강조. 권면했다.

1. ‘자취(自醉)’의 예술가, 송복

송복 교수는 서예가이기도 하다. 1997년 가을에 ‘송복·하경희 논어 서예전(宋復·河慶姬 論語書藝展)’¹⁰⁾을 개최하였고, 2013년 6월엔 ‘송복·하경희(宋復·河慶姬) 맹자(孟子)글귀전(세종문화회관)’¹¹⁾을 여섯다. ‘송복·하경희 논어서예전(宋復·河慶姬 論語書藝展)’ 서문에 흥미로운 발상의 글이 실려 있다. 그는 “조선조가 망했던 여러 이유들이 있겠으나 그 당시 선비층, 사대부들이 모두 한문에 취하고, 사서(四書) 오경(五經)에 취하고, 당송팔대가 등의 시나 부에 취하고, 왕희지(王羲之), 안진경(顏眞卿) 등의 글씨와 사군자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라가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몰랐다.”¹²⁾고 보았다. 송복 교수 또한 조선 시대 선비들처럼 최고의 한시들과 문장들에 이끌려 음미하며 탐독했다고 한다. ‘밤이 언제 오고 날이 언제 새는지를 모르고, 붓장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점심때가 언제고 저녁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그 한문 문화의 심취성(心醉性), 삼매성(三昧性)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¹³⁾ 그에 의하면 문화도 하나의 아편

9) 이 세 가지 공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사회사상과 문화』(동양사회사상학회, 2023.9.30.일자), ‘혜안과 논찬(심원 송복 교수), “송복 교수와의 대담”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이 서예전 도록에는 『논어』에서 가려뽑은 心遠縑(송복) 45구절, 月亭縑(하경희) 92구절의 작품이 실려 있다.

11) 이 글귀전 도록에는 『맹자』에서 가려뽑은 155구절의 월정과 심원 두 분의 작품이 실려 있다.

12) “自醉: 글씨에 취해 나라가 망했노라”, ‘송복·하경희 논어서예전(宋復·河慶姬 論語書藝展)’ 서문.

13) 송복 교수는 이 ‘自醉’와 관련하여 소동파의 연작시 몇 구절을 떠올리고 있다.

(opium)으로서,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혹케 하고 정신을 완전히 흐리멍덩하게 한다. 문화의 흥망성쇠가 한 나라의 존망을 지배한다고도 여긴다.

그는 여느 서예전과 달리 좋은 글씨보다는 좋은 글귀를 보여주기 위해 ‘외람스레이 판을 한번 벌려 본 것’이라며 겸양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쨌든 『논어』의 정직하고 열정적인 탐독가로서 송복 교수 부부는 호학(好學)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한 자취를 서예 작품들로 남겨 놓았다. 이들은 무엇보다 『논어』를 거듭 읽고 수양공부하며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춤추고 발로 뛰는(手之舞之 足之蹈之)’¹⁴⁾ 즐거움과 즐거움, 그 락(樂)과 흥(興)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문득 우리는 퇴계 선생의 「도산십이곡」 시 한 편을 떠올리게 된다. “천운대(天雲臺) 도라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蕭灑)한데/ 만권(萬卷) 생애(生涯)로 악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닮아/ 즈음할고(언학.1)” 송복 교수야말로 만권 서적을 독서하며 학문하는 그 ‘임중도원(任重道遠)’의 길에서,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풍류 또한 삶의 한 일락(逸樂)이며 호연지기(浩然之氣)의 한 방편일 수도 있었으리라. 긴수작(緊酬酌)과 한수작(閑酬酌)의 조화로운 행로이기도 하다.

“쓰다 버린 붓이 담 밑에 쌓여 산과 언덕을 방불케 하는데/ 흥이 한번 동하면 일필휘지 백 장의 종이가 단번에 날아간다./ 내 일찍이 이 짓을 좋아해 아직도 하고 있다만, 할 때마다 매양 나를 웃는다네/ 그대 또한 이 병 들었구나, 그 병 어이 고칠래(堆牆敗筆如山丘/ 興來一揮百紙盡/ 吾嘗好之每自笑/ 君有此病何能瘳)”

- 14) 『논어』 序說에 논어 읽기의 깨침과 즐거움에 대한 程子の 말이 나온다. “정자가 말씀하였다. ‘논어를 읽음에 다 읽은 뒤에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자도 있다. 읽은 뒤에 그 가운데 한 두 구절을 터득하고 기뻐하는 자도 있으며 다 읽은 뒤에 좋아하는 자도 있다. 다 읽은 뒤에는 곧바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는 자도 있다.(程子曰 讀論語 有讀了全然無事者, 有讀了後其中得一兩句喜者, 有讀了後 知好之者, 有讀了後 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 ‘수지무지 죽지도지’란 구절이 여기서 나왔다.

이 전람회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마련한 ‘도반(道伴)의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히 주목한다. “우리 부부는 『논어(論語)』를 함께 읽고 글씨를 같이 쓰는 데는 마음이 잘 맞아서 이 서예전까지 같이 열게 됐다. 부부란 오랜 세월 같이 살다보니 이래저래 같이 되는 모양이다.”¹⁵⁾ 이 부부는 ‘나를 성찰하는 공부, 내 안을 들여다 보는 공부, 그리고 내 안의 때를 걸레로 닦아 내는 공부’, 그 공부를 위해서 『논어』를 읽고 또 읽었다. 그 ‘읽기의 즐거움과 그 즐거움의 여분(餘分)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려는 생각에서’ 서예전을 연다고 하였다. 이들 부부의 서예 작품들은 보면, “자연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염려하는가? 자연은 같은 데로 돌아가는데 길은 다르며, 한 갈래에서 나왔지만 생각은 백 가지이다.”¹⁶⁾라는 『주역』 「계사전」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심원 송복과 월정 하경희 부부는 그 글의 모양과 글자의 빼침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뿌리에 근원하고 있다. 만물이 다양하고 살아가는 길 또한 서로 다른 것이지만 하나의 근원으로 회귀(回歸)하는 것처럼 이들은 서예에서도 ‘다양성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송복·하경희(宋復·河慶姬) 맹자글귀전’은 2013년에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 도록 ‘후기’는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기록돼 있다. 1997년 서예전 도록 ‘후기’가 송복 교수 혼자 이름으로 작성됐던 것과는 대비된다. “우리 부부가 근 반백년을 함께 써 온 글씨는 그냥 붓장난

15) 서예전 도록(1997) ‘後記’. “글씨도 도라면 이 도의 길에는 道伴이 있고 導者가 있게 마련이다. 아내 月亭은 30년전 타계하신 空亭 金允重 선생을 잊지 못한다. 그 선생님의 곧은 서법을 이어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한다. 나의 이 길에선 玄庵 鄭祥玉 교수가 도반이고 도자이다. 이 길에 들어서서는 사람, 누구이든 그를 만남이 곧 행운이다.”

16) 『周易』 「繫辭下傳」 4장,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道, 一致而百慮.” 여기서 천하는 자연을 의미한다. 공자가 『논어』 陽貨편 19장에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나 계절이 운행되고 만물이 생성된다.(天下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下言哉)”고 한 그 天과 같은 의미이다.

일 뿐이다. 감히 서예(書藝)니 서도(書道)니 서법(書法)이니 하는 말들을 붙일 수가 없다. 우리 부부는 오직 ‘붓장난’일 뿐인 이 붓장난을 하며 일상을 살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셨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다.”¹⁷⁾

송복 교수는 그의 회고대로 50여 년 동안 언론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구조, 조직과 제도’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학문을 연마하고 가르치며 인간과 사회 현상의 법칙을 찾아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는 그의 말대로 ‘모두

17) 역사적 기록을 위해 여기 ‘후기’의 나머지 부분을 옮겨 둔다. “宋나라 문인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글에 이 ‘붓장난 병’이 있다. 병도 여사 큰 병이 아닌가. 병 중에는 암 당노 위장 등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술병도 있고 노름병도 있다. 이들 병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는 것이 이 병이다. 낭비도 여간 낭비가 아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어느 것 하나 낭비 아닌 것이 없다. 그 비싼 화선지 백 장이 언제 날아가는지 모른다. 붓이며 벼루의 소비도 그에 못잖다.

동파 소식의 글귀에 ‘너 정말 병들었구나. 나도 좋아 이 짓하고 있다만 할 때마다 비웃는다네. 참으 로 그대 이 병, 어이 고칠래.(吾嘗好之每自笑 君有此病何能縫)’ 여복했으면 천하의 동파가 그렇게 말 했을까. 동파야 천하의 동파이니 그렇다 해도,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우생愚生이야 어찌하랴.

서도가로서 도道로써 하고 서법가처럼 법法으로 하고 서예가처럼 예藝로써 한다면 설혹 붓장난이라 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 문제는 도도 법도 예도 없는 주제에 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 많은 세월을 살아 왔으니 다른 도리가 없다. 어쨌든 저번의 ‘논 어 글귀전’처럼 이번의 ‘맹자 글귀전’을 열었다. 하지만 성현의 어느 문장들처럼 붓장난으로 할 수는 없다. 마음을 모으고 닦고, 뜻을 바꾸고 펼치며, 심혈을 기울여 법法처럼 서법하고 도道처럼 서도하려 했다. 그러나 예藝의 경지에 이르기엔 조형이 너무 미약하다.

이 글귀전 역시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순 한글 영어시대에 사는 제자들이 능히 읽고 이 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음과 풀이 그리고 영어 번역도 함께 실었다. 정년을 한지 오래이어서 제자들 에게 도움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지난번 글귀전에 이어 이 ‘맹자 글귀전’을 연 것이니, 주저없이 가져가서 대를 이어 가훈이 되고 좌우명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겠다.

심원 송복 월정 하경희, 2013년 6월. ”

내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학에서 얘기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아니라 위인지학(爲人之學)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과학을 평생 해온 사람들은 자기 몸 밖의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자기 몸 안, 바로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자각에 이르렀다고 한다. '만물의 이치가 바로 자기 자신 속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萬物皆備於我)'는 맹자의 깨달음을 송복 교수는 자신의 자각(自覺)이 되도록 진력해 왔다. 사람과 삶과 학문에 대한 사유체계를 일일신(日日新)하며 성찰과 관조의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그러한 결과물 중의 일부가 이같은 서예전으로 나타났던 것이리라 여겨본다.

월정 하경희, 심원 송복 선생 부부의 글씨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완당(阮堂) 김정희의 작품, '다반향초(茶半香初, 차가 익어 비로소 첫 향기를 내다)'를 떠올리게 된다. 완당의 글씨 한 구절,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은 차가 한창 익어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오묘하게 행동할 때는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과 같네.(靜坐處 茶半香初, 妙用時 水流花開)"¹⁸에서 비롯한 '다반향초'의 글씨. 심원, 월정 두 분의 정동(靜動)과 그 작품에도 완당의 '다반향초' 기운과 향기가 스며들어, 이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황홀경에 사로잡히게 한다.

2. '천하일품(天下逸品)' 칼럼니스트, 송복

『논어』 자장(子張)편 9장에 "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엄연 엄숙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명확하다.(君子有三變, 望之儼然 即之也溫 聽其言也厲.)"라는 구절이 있다. 엄연(儼然)은 그 용모가 의젓하고 활달한 것이요,

18) 유홍준 2006, 김정희: 알기 쉽게 간추린 완당평전, 서울: 학고재, 329-330에서 인용.

‘온(溫)’은 얼굴빛이 온화한 것이요, ‘려(厲)’는 말이 무게있고 확실한 것을 뜻한다. 이 구절처럼 송복 교수의 자태와 성향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도 많지 않다. 사랑좌(謝良佐) 같은 학자는 이를 두고,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어긋나지 않고, 마치 좋은 옥(玉)이 따뜻하고 윤택하면서도 단단한 것과도 같다.’¹⁹⁾고 하였다. 송복 교수는 이렇게 그 모습이 의젓하면서도 공손하고 또한 온화하다. 그러면서도 그의 말과 글은 중후장대(重厚壯大)하며 정곡(正鵠)을 겨냥하고 찌른다. 그는 그동안 저서와 논문 외에도 수백 편의 칼럼을 써왔다.

『맹자』 이루(離婁)하편에 “폭넓게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상세하게 해설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대의(大義)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지로 돌아가기 위해서이다.”²⁰⁾라는 말이 나온다, 송복 교수는 칼럼을 통하여 대의를 천명(闡明)하고 공유하기 위해 평생을 애써 왔다. 정치사회학자 송복 교수 칼럼의 영향력은 그 전공 관련 저서나 논문보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엄청나게 크다. 특히 우리 사회 주류 언론에 실리는 칼럼은 여론 주도층과 일반 시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파급효과 또한 대단하다. 그가 지닌 문사철(文史哲)의 힘과 문장력으로 그의 칼럼이 게재된 매체의 지가(紙價)와 영향력도 동시에 제고시켰다. 그는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이상을 춘추의 필법으로 ‘천하일품’의 칼럼들을 집필하고 각종 쟁점과 해법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그의 칼럼은 ‘위기재생산의 공권력’(조선일보 아침논단, 1991.4.30.), ‘의식의 국제화’(조선일보 아침논단, 1993.11.30.), ‘지존과 황제’(조선일보, 1998.1.26.), ‘No하는 선비가 없는 나라’(조선일보, 1999.5.26.), ‘불복종도 법 테두리 안에서’(조선일보, 2000.1.21.), ‘축하받지 못하는 훈장’(조선일보, 2002.6.10.)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다. 2003년 3월호

19) 『논어』 子張편 9장, 주자집주에 나온다. “謝氏曰 此非有意於變, 蓋竝行而不相悖也. 如良玉潤而栗然.”

20) 『맹자』 離婁下편 15장. “孟子曰,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也.”

월간조선에는 송복 교수 집중 인터뷰, ‘송복 교수의 자신 만만-무식 만큼 무서운 건 없다.’, 2004년 3월호 월간조선에 ‘송복 교수의 거대한 낙관-1년만의 인터뷰’가 실리고 있다. ‘사회갈등, 상대적 박탈감 커진탓’(중앙일보, 1985.6.10.), ‘프로좌익 수용해야 자생우익 나온다’(중앙일보, 1988.6.8.), ‘민주화 보상과 속물화’(2000.7.12.), ‘퇴장의 미학’(2000.11.22.), ‘왜 노블레스 오블리제인가’(중앙일보, 2001.7.16.), ‘진보를 흠치는 사람들’(중앙일보, 2001.11.19.), ‘지도자가 강하면 참모는 유해야-송복 교수 정년퇴임 강연’(중앙일보, 2002.6.12.), ‘극단적인 사회갈등 경계해야’(중앙일보, 2003.3.7.), ‘깨끗한 보수, 오른쪽에서 새 길 찾기’(중앙일보, 2005.2.11.), ‘조선시대 자강리더십이 샌드위치 한국 해법이다’(중앙일보, 2005.11.13.), ‘임진왜란을 다시 본다’(중앙일보, 2008.4.10.), ‘원칙지키는 사회 만들자’(동아일보 대담, 1981.4.22.),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동아일보, 1999.5.29.), ‘한국사회 보수-진보 균형발전 중요’(동아일보, 2002.6.11.), ‘한국은 지위반란 상태’(동아일보, 2003.9.18.) 등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다.

송복 교수의 칼럼이 실린 매체는 위의 조선, 동아,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매일경제, 한국일보, 미래한국, 서울신문, 주간조선, 서평문화, 사회발전연구소, 한국논단, 현대사회연구소 등 여러 기관들이다. 세계의 문학, 신동아, 삼성소식, 월간 방송, 여성백과, 재정춘추, 정신문화연구, 뉴스위크 등 그의 칼럼과 글이 실린 매체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그는 이러한 칼럼들을 통하여 ‘특혜를 받거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인 상층계층의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 각계 각층, 보수와 진보 등 여러 범주들 사이의 갈등을 직시하고, 그 조화로운 화해와 바람직한 공존 및 상생 발전을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상층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그 책임다하기를 읊소해 왔다. 그의 이러한 가치지향(value orientation)은 『특혜와 책임』(가디언, 2016)²¹⁾이란 단독 저서로도 출간되었다.

송복 교수는 ‘역사의 동력(動力)’을 발전의 엔진이라고 하면서, 그 동력으로 국가는 재조(再造)되고 국민은 활력이 넘친다고 주장한다. “역사의 창(窓)은 오직 그 동력으로만 열린다. 앞선 시대와 다른 새 시대도 새로운 동력없이 이행(移行)이 불가능하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도 내용이며 내실은 모두 이 새 동력으로 창출된다.”²²⁾고 보았다. 지난 세기 1960년대 이후 첫 30년은 ‘적나라한 물리력’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에서 그 동력을 찾았고, 그 리더십이 역사의 동력이 되어 유례없는 산업화를 성취했다고 평가한다. 1990년대 이래 민주화 시대 30년 동안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성공모델 관성(慣性)에 젖어 기존의 정치적 리더십에 기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기필코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역사의 동력’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제기한다. 이 동력은 우리보다 앞서 민주화한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200년 이상 선진사회의 지위를 변함없이 유지하게 했는가를 꿰뚫어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른바 ‘산업화에서 따라잡았다면 민주화에선 왜 따라잡지 못했는가’면서, 그들 선진 국가에는 있고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송복 교수는 이 『특혜와 책임』에서 선진 국가와 우리나라 모두 저성장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저들이나 우리들이나 여러 계층 범

21) 이 저서는 머리말: 노블레스 오블리주-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와 3부로 구성돼 있다. 목차 제목만 차례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부: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1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장 그때 ‘역사의 동력’, 3장 지금 ‘역사의 동력’-노블레스 오블리주, 4장 역사에서의 상층), 2부: 한국 상층의 실상(2000년대 이전)-뉴하이(New High)와 뉴리치(New Rich) 특성(1장 상층: 왜 문제되는가, 2장 상층: 어떻게 되어 있는가, 3장 한국의 상층: 오로지 ‘뉴하이’와 ‘뉴리치’, 4장: 하나의 시사), 3부: 한국 상층의 문제(2000년대 이후)-고위직층의 갑질 행태(1장 치명적 자만, 2장 천민성 지배, 3장 천민성 공연장, 4장 고위직층의 5無)

22) 송복 2016, 특혜와 책임, 서울: 가디언, 8쪽.

주 간의 갈등이 날카롭게 ‘들끓는 분노’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계속’ 존경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도덕심을 높여주는 집단이 있다. 그리고 사고와 행동, 일상생활에서 지표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계속’ 수범(垂範)을 보이는 계층이 있다. 그들이 있어 그들 나라는 ‘계속’ 선진국이고, 선진국의 지위를 그 오랜 세월 ‘계속’ 지켜나가게 하는 힘이 나온다. 그들의 존경심, 그들의 도덕심, 그리고 그들의 수범성은 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오고, 바로 그것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된다. 그 동력이 우리에게서 없다.”²³⁾고 갈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혜받는 사람들의 책임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첫째 ‘목숨을 바치는 희생’, 둘째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 셋째 ‘배려와 양보, 헌신의 희생’을 제시하고 있다.

III. 동양사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과 성찰

: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의 사회학사적 위상

송복 교수는 1999년 뉴밀레니엄 직전 20세기를 마감하며 그 학문적 원숙기에 새로운 저작을 출간하였다.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論語의 세계』(1999, 생각의 나무: 2003, 지식마당)²⁴⁾를 한국사회학과 한국사회에 제기하였다.

1.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의 문제의식

이 저서의 문제의식은 “유교사상에 ‘보편적 가치’가 있는가”를 밝

23) 송복 2016, 특혜와 책임, 9-10쪽.

24) 이 저서는 원래 1999년에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란 책명으로 ‘생각의 나무’ 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2003년판을 보고 인용하였다.

혀 보려는 데에 있다. 그는 “서구 사상의 자유 평등 정의에 필적할 보편적 가치가 동양에도 있는가. 도대체 1960년대 이후 줄곧 제창되어 온 ‘아시아적 가치’란 무엇인가. 그 아시아를 한. 중. 일 세 나라가 구성하는 동아시아로 한정할 때, 이 「논어의 세계」가 보여주는 가치는 어떤 것이며, 그 가치는 얼마나 ‘보편적’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는 가치, 누구나 이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는가.”²⁵⁾고 문제를 제기한다. 동양사상이 지닌 가치지향의 보편성을 탐색하여 그 핵심 가치(core value)를 밝혀 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왜 ‘논어의 세계’에 사회학적 관심(sociological concern)을 기울이고 동양철학 및 사상의 사회학적 함의(sociological implication)를 탐구해 나갔는가. 그는 “시원유학(始原儒學)으로 돌아간 ‘논어의 세계’는 ‘이성(reason)의 최종적 지배’가 만들어 주고 있는, 그리고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해 내고 있는 ‘사람답지 못한 사회’ ‘인간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그 가치야말로 예측의 상자. 자유의 종언으로부터 인간을 회복하고 사람다운 삶의 길을 열어 주는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다.”²⁶⁾고 주장한다. 그 보편적 가치는 바로 ‘논어의 세계’가 담고 있는 오로지 ‘사람주의’라고 본다. 이 ‘사람주의’는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못 오도되고 잘못 적용된 그 ‘사람’ 초점의 ‘사람주의’가 아니고 정식으로 인간을 찾는 ‘사람주의’다.²⁷⁾

25) 송복 2003, “머리말: 왜 「논어의 세계」인가”,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서울: 지식마당

26) 위의 책, “머리말” 참조.

27) 그에 의하면,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잘못 얹히는, 우리(wenness) 아니면 그들(thetness)이라는 ‘그 사람들’끼리의 사람주의가 아니라, 끼리끼리의 ‘그 사람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사람주의’다. 그는 합리적 자본주의를 ‘코로니(crony) 자본주의’로 만드는 그 오용된 동양적 가치가 아니라 시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본래 모습의 동양적 가치라는 의미에서의 ‘사람주의’라고 강조한다.

송복 교수는 ‘논어의 세계’에서 ‘사람주의’는 인(仁)과 덕(德)으로 나타나고, 효(孝)와 충(忠) 예(禮)로 나타나며, 군자(君子)로 나타난다고 정리한다. “‘논어의 세계’에서 인(仁)은 오로지 ‘사람의 사랑’이고, 덕(德)은 오로지 ‘사람의 수용’이다. 효(孝)는 육친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에 대한 공경(恭敬)’이고, 충(忠)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실’이다. 예(禮)는 ‘사람들 관계, 사람들 행동의 조화’이고, 군자(때로는 선비)는 이 모든 것을 총합적으로 몸소 실현하는 한 지표로서의 ‘가장 사람다움의 지향상(志向像)’”²⁸⁾이라고 해석한다. 이 가치들은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본성에 가장 충실해서 만들어진 가치라고 본다. 그 본성에 가장 충실한 「논어의 세계」가 지닌 동양적 가치는 그래서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의 핵심 내용

그는 이 저서를 크게 지향(志向), 행위(行爲), 총합(總合)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다섯 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선비-또 하나의 지향상’이라는 보론을 첨부하였다. 제1장은 인(仁)이다. 인의 뜻으로 너를 사랑(범애중汎愛衆), 사람 통한 사랑(사인주의斯人主義), 닦는 사랑(수기애인修己愛人)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인의 성격으로 생득성(生得性), 평범성(平凡性), 현실성(現實性), 성실성(誠實性)의 네 가지로 요약한다. 인(仁)의 길로서는 총론과 세론(細論)으로 나누고 있다. 총론에선 수기(修己), 효제(孝悌), 충서(忠恕), 통합의 원리를 다루고 있으며 세론에서 인(仁)의 13 가지 길²⁹⁾을 특징화하고 있다. 제2장은

28) 위의 책, “머리말” 참조.

29) 인(仁)은 ‘배우는 것’이다, 인은 ‘진실한 것’이다, 인은 ‘실천하는 것’이다, 인은 ‘남도 나처럼 서게 하는 것’이다. 인은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인은 ‘공손. 경건한 것’이다, 인은 ‘믿음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인은 ‘용기있는 것’이다, 인은 ‘질박한 것’이다, 인은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은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인은 ‘가난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인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다.

덕(德)을 다루고 있다. 우선 덕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구분하고 있다. 성리학에서 논의했던 덕으로서, 정자(程子), 주돈이(周敦頤), 주희(朱熹)가 덕을 무엇으로 인식했는지를 정리하고, 『논어』에서 덕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수기(修己)로서의 덕, 도리(道理)로서의 덕, 대승(大乘)으로서의 덕, 중화(中和)로서의 덕이 바로 그것이다. 덕의 현대적 의미로서 중(中, 중용(中庸))의 의미와 덕의 실체(사회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덕의 특성으로 관대(寬大), 참여(參與), 공평(公平)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덕의 길로는 닦음(修己), 회소성, 카리스마, 덕치(德治) 네 가지를 제시한다.

제3장은 효(孝)에 관한 것이다. 먼저 왜 효인가를 제기하고, 효의 의미, 효의 특징(중첩적 행위, 확대적 행위), 효의 기능(통합과 제시)에 대해 서술한다. 효는 포괄적 측면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 즉 사친(事親)’으로 보고, 행위적 측면과 상황적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행위적 측면에서 효는 존친(尊親,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불욕(不辱,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 능양(能養,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다. 상황적 측면에서 효의 핵심으로 경(敬, 부모가 기력있어 정상 활동할 때 마음을 다하여 공경), 락(樂, 연만해서 봉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하기), 우(憂, 병이 났을 때 마음을 다하여 근심하는 것), 애(哀, 돌아가셨을 때 마음을 다하여 슬퍼함), 엄(嚴, 제사를 지낼 때 마음을 다하여 엄숙히 하는 것) 다섯 가지를 들고, ‘마음을 다하여(진심, 盡心)’ 이를 실천하는 것을 효 행위의 기본으로 본다. 사회관계적 측면에서는 가족 밖의 사회생활에서 교만하지 않고, 남의 밑에 있어도 윗사람이나 동료에 거슬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 무리지어 있어도 남과 다투지 않는 것이 부모 섬기는 자의 도리라고 하였다.

송복 교수는 효가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사회통합은 사회발전과 표리적 관계인데, 효의 통합적 기능이

어느 사회든 사회해체 내지 사회분열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효는 사회 해체 이전에 가족의 해체를 막고, 건전한 가족을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가족의 유지가 위협 받고 이 가족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대안적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가족의 대체 제도로서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가족의 재발견, 가족 가치의 제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는 ‘전통사회의 효와 현대사회의 효는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가족 가치의 유지’와 ‘가족 가치의 새로운 재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송복 교수는 한국 사회의 가족 특성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³⁰⁾ 그리고 ‘한국 사회의 효는 한국 사회가 규범적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사회의 효는 ‘유토피아적 제시(提示)’와도 같다. 즉 현실적인 실현은 언제나 지난하다 해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실적(反事實的)인 것이라 해도, 인류 역사의 규범적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가 항시 필요한 것이듯이, 한국인에게 효는 가장 필수적인 규범의 제시다. 그것은 정신적 수유(授乳)이고 실행동의 밑받침이라 할 수 있다.”³¹⁾고.....

제4장은 예(禮)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논어』는 예(禮)의 가르침이자 예에 관한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많다. 『논어』 전체 20편 499장 중에, 예를 언급하고 있는 곳이 무려 18편이며 75개 구절이나 된다. 송복 교수는 『논어』의 예(禮)를 인위성(人爲性)이 아니라 자연성(自

30) 첫째 한국사회에서 가장 정상적인 가족(normal family)은 자식을 가진 가족이다. 둘째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고 희생하고 봉사한다. 셋째 한국의 가족은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친자중심 가족(consanguine family)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송복 2003,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서울: 지식마당, 182-85쪽을 참조.

31) 송복 2003, 위의 책, 185쪽.

然性)으로 본다. 예에 대한 주자의 주석은 많은 학자들이 수용하고 있다. ‘예는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따르는 절문(節文), 즉 예의 범절이며 규정³²⁾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절문(節文)’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절차와 문장으로서 일련의 규칙과 규범 체계라 볼 수도 있다. 어떻든 예(禮)가 ‘천리지절문(天理之節文)’이란 표현에서처럼 ‘자연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예의 사용에서 화(和)가 가장 귀중하다는 것은 서로 일치한다.³³⁾ 그런데 사람들의 사회에서 화(和)는 예(禮)에 의해 조절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규정으로서의 예(禮)도 마찬가지다. 예(禮)에만 치우쳐 절제만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그 관계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마침내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갈갈이 찢겨져 버린다. 그래서 송복 교수도 ‘예(禮)로써 절제하며 화(和)를 도모하고, 화를 지향하며 또한 예로써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송복 교수는 예(禮)에 대한 수사학적(洙泗學的) 접근에서 ‘가례적(家禮的) 예’와 ‘수사학적(洙泗學的) 예’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수사

32) 『논어』 學而편 12장. “유자가 말하였다. ‘예의 용은 화가 귀함이 되니,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하여 작은 일과 큰 일에 이것을 따른 것이다.’”(有子曰 禮之用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小大由之.) 이 구절에 대한 주자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예는 천리의 절문이요, 인사의 의칙이다. 화는 종용하여 급박하지 않은 뜻이다. 예의 예됨은 비록 엄하나, 그러나 모두 자연의 이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그 용됨은 반드시 종용하여 급박하지 않아야 귀할 만한 것이 된다.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 작은 일과 큰 일에 이것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禮者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和者 從容不迫之意. 蓋禮之爲體雖嚴, 然皆出於自然之理. 故其爲用必從容不迫, 乃爲可貴, 先王之道此其所以爲美而小事大事無不由之也.)

33) 인간사회에서 和는 자연처럼 和로 늘 남아있지 못하다. 자연처럼 그렇게 절로 조화로 이끌어지지 않는다. 和를 중시해서 한결같이 和에만 치중하면 그 和는 마침내 방탕한 데로 흘러서 和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고 만다. 이는 『논어』 학이편 12장의 朱子 집주에서 ‘和에만 치중하면 그 화는 마침내 방탕으로 흘러 돌아옴을 잇는다’(一於和 所以遊蕩忘反)는 구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악(樂), 곧 음악이다.

학적 예의 기본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인간학적 예로서, 이는 인간 중심의 예, 인간 발견의 예,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예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 자각의 예, 인간 자율의 예, 인간 존엄의 예이다. 수사학적 예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인식할 때, 사람다움의 근본은 신(神)이 아니라 인(仁)이다. 사람다움의 요체인 예(禮)는 신의 뜻에 귀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仁)에 귀의함으로써 강구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인(仁)을 인도(人道), 인애(人愛), 인본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예(禮)를 사회 속의 인간 상호 관계에 근거하는 예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예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의 지침’으로 인식하여 이른바 ‘사회적 예’로서 그 기능과 성격을 재정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송복 교수의 사회학적 해석(sociological interpretation)에 의하면, “이러한 면에서 수사학적 예는 신의(神意)에 맹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신마저도 인격적인 신인 천(天)으로 재해석하고, 나아가서 천의(天意) 자체를 인간 중심의 인간을 위한 의지인 것으로 분별해 내려는 예의 인간화이며, 예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이룩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四禮) 중심의 사례(私禮)인 가례(家禮)와는 달리 수사학적 예는 비가례적(非家禮的)인 공례(公禮)로서 사회성을 강하게 지닌다고 본 것이다. 둘째 수사학적 예(禮)는 합리주의적 예다. 합리성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예(禮), 사람 본위에 입각한 이성주의적 예를 말한다. 이러한 예(禮)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경험론이며, 사변적인 관념론이 아니라 실증론이라 할 수 있다. 예는 사치한 것이 아니라 검소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며, 경험의 세계이고 가치의 세계인 인간사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수사학적 예는 실천적 예다. 실천적 예의 특징은 극기복례(克己復禮)³⁴⁾로 요약할 수 있다. 송복 교수는 인(仁)에서 보듯, “예(禮)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나의 노력 나의 실제 행위와

34) 『논어』 顏淵篇 1장. “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합일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는 극기(克己)라는 내성적 자수(內省的 自修)의 공정(功程)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며, 극기의 노력과 실천 속에서 또한 비례(非禮)를 저지르기 쉬운 사욕이 제어되는 것”³⁵⁾으로 본다.

예의 이념적 구조에서는 ‘사회적 화(和)’와 ‘개인적 화(和)’(인격적 측면의 화와 행동적 측면의 화)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사회적 화’의 경우, 예는 사회적 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는 사회 내 각 부문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동시에, 조화로운 사회 관계의 바탕 위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예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때 사회 내 각 부문들의 관계는 균형을 이루고 사리에 맞게 행해진다. 그래서 송복 교수는 “예와 사회관계는 조화의 차원에서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표리의 관계를 갖는다 할 수 있고, 이 둘은 사실상 어느 쪽도 인과론적 우위됨이 없이 연쇄적인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 준다 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화(和)’의 전형적 사례로 ‘전통과 혁신의 조화’, ‘가족과 사회의 조화’³⁶⁾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예는 사회적 화(和)인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개인적 화(和)’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송복 교수는 “개인에 대한 예의 기능 역시 개인의 인격과 의식을 조화시키고, 개인의 행동을 조화시키며 개인이 행하는 의절(儀節)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화된 개인이 사회에 무리없이 연결

35) 송복 2003, 앞의 책, 196쪽.

36) 송복 교수는 전통사회와 비교할 때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는 현상을 주목한다. 洊泗學의 관점에서는 禮가 가족적 행위와 사회적 행위의 일관성을 기본으로 하고, 이 두 행위가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송복 교수는 주목할만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 내의 행위가 가족 밖의 사회적 행위로 연장될 때 그 행위는 똑같이 바람직한 행위로 지지받아야 하고, 사회적 행위가 가족 내로 이어져 들어올 때 그 행위 또한 마찰이나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 행위는 그 행위가 전개되는 시간과 장소 상황만 다를 뿐, 하나의 행위로 통일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송복 2003, 201쪽.)

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개인적 화(和)를 인격적 화(和)와 행동적 화(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예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통합성(統合性)과 정체성(正體性)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송복 교수는, 예는 ‘화(和)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정의적 단합, 가치적 합일과 같은 상징적 통합성(symbolic integration) 내지 규범적 통합성(normative integration)을 가져오게 하는 특성이 있다’³⁷⁾고 본다. 예는 정체성(identity) 증대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보면서 이 정체성은 ‘삶의 보람’에 대한 스스로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체성 혹은 정체의식을 다시 예로 귀착시킬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사학적 예의 개인적 화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해석은 사회학적 관점이기도 하다. 개인들끼리 상호작용하기 이전에 자아가 주체성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화이부동(和而不同)할 수 있는 나(self)’를 확립해야 한다는 송복 교수의 주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수사학적 예(禮)에는 화(和)뿐만 아니라 덕(德), 치(治), 성(性)까지 포괄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송복 교수는 ‘예의 구조와 지향’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구성요소	이념적 지향	궁극적 지향
화(和)		
덕(德)	인간주의	
치(治)	합리주의	인(仁)
성(性)	실천주의	

제5장은 군자(君子)에 대한 논의이다. 『논어』에서 ‘군자’라는 단어는 ‘예(禮)’에 비견할 만큼 많이 나오고, 선비 사(士)자를 제외하고도 63장에 걸쳐 군자를 거론하고 있다. 송복 교수는 이 모두를 요약하면 ‘군자=지천명(知天命), 천명(天命)을 알고 천명을 두려워하는 사

37) 송복 2003, 213-14쪽.

람'이라고 보았다. 그는 『논어』에서 '군자는 반드시 의(義)로써 바탕을 삼고 예(禮)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구절에 주목하여 군자는 그 정신과 행동에서 '의(義)의 사람이며 예(禮)의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군자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존재, 누구에게나 수범(垂範)이 되는 존재, 그리고 사고와 행위에서 지표(指標)가 되고 지향상(志向像)이 되는 존재' ³⁸⁾이다. 송복 교수는 『논어』에서처럼 군자의 특성과 소인(小人)의 특성을 그 속성, 행위의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상세하고도 적절하게 비교, 설명한다.³⁹⁾ 다음과 같은 대목에 이르러서는 송복 교수의 해안과 통찰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사회는 '같음(sameness)'이 주는 이득과 함께 그 '같음'이 주는 해악도 함께 있다. 통합(統合)은 '같음'이 주는 이득이지만, 정체(停滯)는 그 '같음'이 주는 가장 나쁜 해악이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그 절대 다수의 '같음'과는 다른, '다름(difference)'을 지향하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⁴⁰⁾ 그 '다른' 사람이 바로 군자이다. 소인과 대비되는 이러한 군자를 가장 바람직한 인간, 다른 사람과 다른 행위의 총합적(總合的) 실행자, 누구보다 예(禮)의 정신에 투철하고 거기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⁴¹⁾이라고 보는 것이다.

송복 교수는 '예(禮)의 총합적 실행자'로서 군자는 궁극적으로 세가지를 지향하고 행위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지명(知命), 지례(知禮),

38) 송복 2003, 위의 책, 228쪽.

39) 소인과 대비하여 군자를 언급한 대목은 『논어』 里仁편 11. 16장, 爲政편 14장, 子路편 23. 25. 26장, 衛靈公편 1. 20. 23장, 顏淵편 16. 19장, 陽貨편 4장, 憲問편 24장 등을 참조.

40) 송복, 위의 책, 229쪽.

41) 송복 교수는 '군자론'에서, 군자를 논의하려면 반드시 禮와 관련시켜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와 군자는 전통 사회의 가치. 규범이며 전통 사회의 수범적 인간상이고, 농업 사회의 사회관계 및 생활양식에 맞는 행위 기준과 행위 지향이며 이상적 인간형이기 때문에 현대의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어떻게 이어지며(계승), 그 사회의 조건과 사회적 행위 유형에 어떻게 적용되고 조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복 2003, 231-35쪽 참조.

지언(知言)으로서 군자는 천명(天命)을 바로 알고, 예(禮)를 바로 알고, 언(言)을 바로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행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천명’은 ‘하늘이 명하여 부여한 것이며,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사람의 본성이고, 그 본성 속에 들어 있는 바른 도덕, 즉 정리(正理, 도리道理, principle)이고, 광범위한 의미의 인간의 도덕성이다. ‘지명(知命)’에서는 무본(務本)과 존양(存養)과 분수(分數)를 논의하고, ‘지례(知禮)’에선 유연(柔軟)과 절제(節制)를 강조하고 있다. 5장의 맺음에서 ‘예(禮)의 군자행(君子行)’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군자지향:	행위 과정:	예 본위(절제):	행위 기본:	행위 창달:	행위 유형
知命	修己	마음의 절제	仁義	愛人	당위적 행위
知禮	절제	행위의 절제	恭敬辭遜	調和	조화적 행위
知言	신중	표현의 절제	好學	문화	분별적 행위

그리고 보론으로 ‘선비: 또 하나의 지향상’을 제안하고 있다. 송복 교수는 선비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으로서 수기(修己), 의기(義氣), 속탈(俗脫) 세 가지를 들고 있다.

3.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의 사회학적 위상

송복 교수의 이 저서는 ‘동양적 가치’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다. 원래는 ‘유교사회학’이란 제목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유교사회학이란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고 우회적이라 책 내용을 직시하기 어렵다’⁴²⁾고 판단하여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논어의 세계』로 정했다고 한다. 동양적 가치의 핵심 요소인 인(仁), 덕(德), 효(孝), 예(禮)를 사회학 내지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군자와 선비는

42) 송복 2003,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281쪽.

또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이는 동양적 가치나 동양철학 및 사상에 관련된 경전이나 저작들을 독서하며 공부하는 이들의 공통된 과제이다. 경전 내지 관련 저작들을 통해 수백 수천년 동안 고민하고 수양공부해 왔던 이들의 사유체계와 이들이 지향하는 바의 가치(value)를 어떻게 서구의 사회학적 내지 사회과학적 이론 내지 개념들과 접합시켜 해석해낼 것인가의 문제는 중차대하지 않을 수 없다.

송복 교수는 이러한 과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였다. 동양적 가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오늘날의 사회과학적 개념과 이론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도전과 실험은 한문에 대한 해독 및 고전 경전 및 관련 문집들에 대한 원활한 해석 능력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연구해 보려는 욕구는 이러한 도구적 수단이 뒷받침되고, 경전 및 관련 저작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뒷받침될 때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송복 교수와 같은 능력과 자질, 실질적 독서의 힘, 이를 받쳐주는 문사철의 광범위한 교양을 갖춘 사회과학자는 극히 드물다. 그는 “학문의 귀소본능(歸巢本能)이라 할까. 남의 것은 어쨌든 남의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객관화하고 과학화되어 있다 해도 살아온 방식이 다른 까닭에 남이 나를 설명하는 것만큼 실제에 가까울 수 없다. 그래서 귀소본능처럼 내 것으로 돌아와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보다 적나라하게, 보다 실감나게 설명하고 싶었다.”⁴³⁾고 했다.

송복 교수는 동양인들에게 인과 덕은 ‘삶의 지향상’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윤리 도덕의 지표로서의 지향상(志向像)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사람됨’의 지표로서의 지향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인(仁)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덕(德)은 ‘사람에 대한 께안음(包容)’이라고 해석한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라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포용’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은 없다고

43) 송복 2003,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281-82쪽.

단정하기도 한다. 그는 “효와 충과 예는 인과 덕으로 가는 과정의 행위이고, 지향이 있고 행위가 있다면 이 둘을 총합하는 표상(表象)이 있는데, 그 표상이 군자이며 선비”라고 결론짓는다.

송복 교수의 유교사회학 정립이라 할까, 동양 및 한국사회학의 모색과 추구라 할까, 우리 한국학의 주체적 정초(定礎)라 할까, 어떻게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회학의 구축이 지니는 사회학적 의의는 지대하다. 여기서 이 글을 쓰는 필자의 졸견을 아울러 감히 환기시켜 보고 싶다. 필자는 2018년 한국사회학회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하고 『사회사상과 문화』(2018.12.30.)에 게재하였다.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서양=모험과 도전의 문화, 동양=효도와 희생의 문화로 특징화하여 동서양 문화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혹자는 동양사상 내지 동양사회사상은 연구와 토론의 주제라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재미삼아 동원하는 일종의 ‘캠페인 동양학(Oriental Studies as Campaign)’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양사회사상과 문화’의 학문체계를 논의하면, “그거 벌써 끝난 것을 가지고 왜들 저래? 그래 그러한 논의가 얼마만큼 현실 유관적합성(relevance)이 있으며, 서구 표준사회학적 인식틀의 과학적 분석만큼 설명력이 있나?”라고 시니컬하게 되묻는다. 사회현상에 대한 동양사회사상적 접근(approach)을 때로는 ‘유아론적 헛소리(solipsistic drivel)’로 치부하는 왜곡의 눈초리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같은 경향은 일반인만이 아니라 학술연구자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캠페인 동양학’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통합적 동양사회사상 연구(East Asian Social Thoughts Studies as Integration)’를 주장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 표준사회학적 인식틀의 한계를 성찰하고,

44) 이같은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2021년 정년퇴임하며 ‘유학사상과 표준사회학의 접합과 통합’이란 주제의 논문을 준비했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조만간 그 글을 수정보완하여 절정(叱正)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과 구축을 위한 ‘사회학적 야망(ambition)’(실링, 크리스, 필립 A. 멜러(Shilling, Chris and Philip A. Mellor) 2013, 사회학적 야망(The Sociological Ambition, 2001, 박형신 옮김, 한울아카데미)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수량적 업적 달성과 그 과실의 평가, 보상이라는 이른바 ‘평가사회’에 길들여지고 있다. 무한 욕망의 긍정, 무한 경쟁의 자유 필요성을 수용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찰적 대안의 문제제기가 일종의 ‘경쟁력 강화’ 명분 속에서 평가 절하돼서는 곤란하다. 후기 근대사회의 동시대인들에게 동양사회사상의 철학 및 사상적 자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정체성의 일부인 동시에 상당 부분 타자화된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볼, 피터(Bol, Peter K.) 2011, 역사 속의 성리학(Neo-Confucianism In History, 김영민 옮김), 예문서원, 11쪽). 기존의 주류 사회학적 인식들과 동양사회사상적 사유체계를 통합적 내지 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시도는 학문적 주류 패러다임을 차지하겠다는 권토중래적 전략이 아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거기에 걸맞은 관점을 수립해 보려는 일종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의 결의 및 실행이라 볼 수 있다.⁴⁵⁾

동양의 사회사상과 문화는 2,500년의 유가적 전통만이 아니라 불교와 도교 및 그 이전의 하(夏)나라와 은(殷)나라 문화를 포괄하는 5천년 이상의 문화적 전통에서 뒤섞여왔다. 그러므로 동양사회사상적 접근은 세계 사회사상의 출발점 내지 근원에 대한 관심(concern)이다. 그 중에서도 2,500여 년의 유가적 전통에서는 생성과 소멸, 변화와 개혁, 자기 혁신

45) “경쟁의 논리는 끊임없이 효율성의 제고를 유도한다. 일반화된 경쟁 논리 앞에서는 실체적인 것이 도구적 효율성의 눈금에 따라 코드화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창의성마저 도구적 효율성의 잣대로만 평가되기 쉽다. 세계화된 시장은 수익과 손실의 규모를 천문학적 단위로 바꾸어 놓는다. 경쟁의 판은 규모가 커질수록 독점화되기 쉽다.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고갈될수록 기술 혁신만이 생존의 유일한 조건이지만, 혁신의 조건은 점점 어려워지기 마련이다(김상환 외, 2016: 36-37)”.

과 변혁 등과 같은 내생적 특성을 지녀오고 있다. 동양사회사상의 저작들을 독서하고 새롭게 수양공부하는 행위는 학술적 차원에서 통시대적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소통 작업이다. 역사적으로 축적돼온 지적 보고(寶庫)의 탐구 활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자료에 접근할 것인가, 동시에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서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논어(論語)』는 그 서두(序頭)가 배울 ‘학(學)’자로 시작한다. 혹자는 중국이 유일신 문화를 그 속성으로 지녔더라면 그 첫구절이 믿을 ‘신(信)’자로 시작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신정근 2013, “사람에 대한 꿈을 꾸다, 논어”, 인문학명강, 21세기북스, 47-48쪽). 그런데 공자가 무엇보다 먼저 ‘학’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동양의 핵심 고전들은 그 주된 관심을 바로 인간에 맞추고 있다. 사람은 갖가지 약점과 취약성을 지닌 존재이다. 인간은 당면한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여 보다 계몽되고(enlightened) 성숙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 내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동양의 철학사상가들은 그 중에서 배움, 즉 ‘학(學)’을 통해 끊임없이 수양공부함으로써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

부단한 독서와 존양 및 성찰 공부를 통해 우리는 또한편 어떠한 과거를 기억, 계승하고 어떠한 과거를 징비할 것인가 하는 쟁점에 몰입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치열한 사상사의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陳舜臣 2007, 논어교양강의(論語抄, 서은숙역, 돌베개).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다양한 철학사상의 흐름과 이후의 철학사상적 인식틀 역시 각 시대와 역사의 지식사회학적 맥락(context)이 선택하고 구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금에 이르러 ‘사회학과 동양사회사상’의 화두를 들고 이러한 학문적 통합 내지 융합의 장정에 나섰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이러한 연구 지향(orientation)은 새로운 사유체계와 학문적 틀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작업이다. 그동안의 한국사회학이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의 문맥에 갇혀 있고, 이른바 근대성(modernity)의 담론에

몰입하여 고전에 대한 정독법(正讀法)을 키워오지 못했던 데 대한 반성 작용이며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동사학회는 최소한 ‘우리가 어떠한 문맥에 간혀 있는가’를 정직하게 성찰하고자 했던 것이다(정학섭 2015, “표준사회학적 연구와 동양사회사상적 공부하기의 통합”,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4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9-30쪽).

우리들의 학술 연구 내지 수양공부는 최소한 서구중심적 ‘직업으로서의 학문’ 범주를 뛰어넘어 보려 시도한다. 단순한 지식 습득과 교육 전수의 기존의 생산소비론의 논의를 벗어나는 지점에 다다르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래로부터 배워 위로 오르며(下學而上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허물삼지 않는(不怨天不尤人)’⁴⁶⁾ 수양공부의 세계에서 유유자적하고 있기도 하다. ‘하학상달(下學上達)’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주자는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해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투합하지 못해도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다만 아래에서 학문을 하면 자연히 위로 통달할 것임을 안다. 이것은 다만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정진할 때 순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진보할 뿐이지, 남들과 아주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앎을 넓히지(致知) 앎있음을 스스로 언급한 것”⁴⁷⁾이라고 주석한다. 이에 대해 정명도(程明道)는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하학상달의 개념을 학문의 핵심으로 견지해야 한다. 무릇 인간의 일을 배우면 곧 위로 천리에 통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일을 익히기만 하고 그 이치를 살피지 않으면 또한 위로 통달할 수 없는 것”⁴⁸⁾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사회학이론과 사회철학 및 사상의 근원적 힘은 무엇일가를 되물어본다. 그 자체가 원래 투명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46) 『論語』 憲問편 37장.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이 구절에 대해 번역본에 따라 35장 또는 36장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47) 『論語』 憲問편 37장에 대한 주자집주, 不得於天而不怨天, 不合於人而不尤人. 但知下學而自然上達 此但自言其反己自脩 循序漸進耳. 無以甚異於人而致其知也.

48) 『論語』 憲問편 37장에 대한 정자집주, 學者須守下學上達之語, 乃學之要. 蓋凡下學人事, 便是上達天理. 然習而不察, 則亦不能以上達矣.

명료하게 밝혀내기는 힘들다. 사회학적 관심을 지닌 이들에게 지상 만물과 현상들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철학 사상(thought)의 이론적 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세계 전체의 융합 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 사이의 관계와 친밀성, 인간 사회의 공감 소통 배려, 폭력과 중독으로 점철된 위험사회 등에 사회학적 관심을 지니고 새롭게 이론틀을 구성하려는 우리들의 ‘하학상달’ 구체성은 무엇일까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⁴⁹⁾

IV.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 연구의 의의와 공효(功效)

송복 교수는 2007년 11월 8일,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지식마당)』이란 저작을 출간했다. “나는 왜 류성룡(柳成龍)을 쓰는가”라는 머리말에서, 그는 집필 동기가 두 가지라고 밝혔다. 1)오늘날 한반도 분할은 언제부터 시도되었는가, 2)그 분할 획책을 누가 어떻게 막았는가, 즉 1)한반도 분할의 원류 2)분할 획책을 막은 인물의 능력 및 그 리더십 두 가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1.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의 출간과 서애학회 창립

이 저서의 1차 자료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저작집인 『징비록(懲毖錄)』 1. 2권, 『진사록(辰巳錄)』 『근폭집(芹曝集)』 『군문등록(軍門謄錄)』 『녹후잡기(錄後雜記)』 등 모두 『서애전서(西厓全書)』에 들어있는 글이다. 특히 『진사록』에 나오는 서장(書狀) 288건, 『근폭집』에 나오는 차자(劄子) 계사(啓事) 등 상소문 94건, 『군문

49) 정학섭 2018, “지속과 변화: 표준사회학적 인식과 동양사회사상적 상상력의 융합”,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4호, 동양사회사상학회, 1-31쪽 참조.

등록』에 나오는 계사 61건 문이(文移, 예하 기관에 전달한 공문) 106건 등 총 549건의 문서⁵⁰⁾를 빠짐없이 정독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류성룡을 읽다, 제2부 전쟁을 말다: 전략가 류성룡, 제3부 조선 분할을 막다: 정치외교가 류성룡, 제4부 독립자강의 길을 찾다: 자강경세가 류성룡, 이렇게 네 부분 478쪽의 역저(力著)이다.

제1부는 1장 왜 징비록을 읽지 않았는가: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⁵¹⁾ 2장 압록강을 넘지 말라: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조선은 내 땅이 아니다⁵²⁾로 이뤄져있다. 제2부는 1장 군량(軍糧) 전쟁: 전쟁은 군량이다,⁵³⁾ 2장 조선군: 명령이 여러 갈래로 나오다,⁵⁴⁾ 3장 군국기무(軍國機務): 정병 만들어 나라 살린다⁵⁵⁾로 이뤄져있다. 제3부는 1

50) 임진왜란 7년 동안 宣祖에게 올린 상소문과 文移 549건은 4·5월에 한 건씩 보고한 셈이다. 2/3 정도는 유실되고 남아서 보존돼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한다.

51) 제1부 1장은 1. 조선은 나라인가, 2. '10만 양병론': 그 정치적 조작, 3. 실상은 어떠했는가(이병도 교수의 강의, 인구 세입의 실상, 울곡의 무서운 비유, 국왕-그들끼리의 나라), 4. 서에 류성룡,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 왜 징비록을 읽지 않았는가로 구성돼 있다.

52) 제1부 2장은 1. 明倭전쟁-전략적 선택(걸림돌 조정, 조선 명맥잇기-류성룡의 물과 이순신의 바다), 2. 압록강-최후의 강(회지무급-후회가 무슨 소용에 닿으랴, 어디로 갈 것인가-명으로 함경도로), 3. 다시 역사 속으로-류성룡이 끝까지 막지 않았다면(함경도행이었다면 조선이 존재했을까, 명으로 갔다면 조선이 존재할까, 류성룡이 아니었으면-朝鮮非我有也의 의미)로 구성돼 있다.

53) 제2부 1장은 1. 누가 말하는가(인물난, 고작 7년,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선조의 지인지감, 버팀목 류성룡), 2. 곡식이 정병을 만든다(군량의 필요량, 군량의 조달 능력, 군량 확보 방법), 3. 류성룡의 새 모색-백성이 즐겁게 따르도록 한다(이순신의 無湖南無國家論, 류성룡의 反掠奪國家論, 곡식 1만석만 있다면)로 구성돼 있다.

54) 제2부 2장은 1. 역피라미드(왜 피라미드인가, 조선군의 역피라미드 편제, 십양구목, 전쟁 그러나 전투가 없었다), 2. 祿俸없는 장수(임오군란은 왜?, 병졸-장군 생활 수단, 녹본없는 장수자리가 인기), 3. 무기 없는 병졸(明軍장수의 말-조선군사는 병기가 없다, 병졸 병기-스스로 마련, 허수뿐인 군사 수효), 4. 전쟁은 누가 말하는가(울곡 이이의 체념, 방법론이 없다, 원군이 주군이 되다)로 구성돼 있다.

장 평양 미스테리,⁵⁶⁾ 2장 강화(講和) 추진,⁵⁷⁾ 3장 조선 분할 획책⁵⁸⁾으로 이뤄져있다. 제4부는 1장 또 하나의 싸움-명의 조선 직할통치 시도,⁵⁹⁾ 2장 楊鎬와 柳成龍,⁶⁰⁾ 3장 류성룡 물러나다⁶¹⁾로 이뤄져있다.

-
- 55) 제2부 3장은 1. 自衛의 틀(文弱 속성, 국가 보위-류성룡의 군국기무, 역사는 자 비롭지 않았다), 2. 안보불감증(우이독경, 기강불립, 급하고 빨리 잇고, 幕府를 열다-方開幕府), 3. 精兵制-정에 없으면 적국제어 못한다(준비해온 전략가-류성룡, 대설계-기무 10조, 군제 개혁-新軍制 精兵 1만병제 選鋒制)로 구성돼 있다.
- 56) 제3부 1장은 1.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물밑추진 강화 4년, 피동의 시간과 허송 세월), 2. 왜 그랬을까(小西行長 수수께끼, 明軍이 패해도, 沈惟敬 화의와도 무관, 덩케르크 미스테리), 3. ‘역사의 假定’에 진실을 보다(小西行長-의주로 쳐 내려 왔다면, 쓸모있는 바보와 쓸모없는 바보), 4. 류성룡의 외침- ‘하늘의 도움으로, 하늘의 도움으로’로 구성돼 있다.
- 57) 제3부 2장은 1. 明은 왜 출병했는가(과산 상태의 明이 왜?, 遼東방어의 울타리-조선), 2. 明-倭-왜 강화하려 했는가(明의 목적달성, 倭의 목적확인-전쟁은 돈과 힘으로), 3. 분할 시도-류성룡의 외로운 싸움(明-倭 그리고 흥정거리 朝鮮, 류성룡의 강화저지 싸움, 강화 내건 明軍횡포)으로 구성돼 있다.
- 58) 제3부 3장은 1. 倭의 분할요구-조선 4도를 내놓아라(히데요시의 오랜 계획: 朝鮮분할, 明-倭 1차 2차 회담, 히데요시의 강화 7개조, 2가지 해석, 강화과정의 미스테리, ‘허위보고’가 조선분할을 막다), 2. 明의 分割易置-조선을 나누고 임금을 바꾸겠다(霸權行態, 분할역치의 시발, 分割易置의 전말서), 3. 류성룡의 독립주의, 4. 류성룡의 유능제강(宣祖의 양위서 제출, 류성룡의 정치력, 司憲이 남긴 말, 柳川 韓浚謙의 수기)로 구성돼 있다.
- 59) 제4부 1장은 1. 왜 직할통치인가, 2. 직할통치 두둔하는 선조(선조-류성룡 자강론 반박, 선조-제 나라 불신), 3. 조선총책 楊鎬-막강권력 통치자 행세(양호의 병권 장악, 아 조선군, 이순신 묶는 양호의 兵權, 무소부지 楊鎬, 2가지 의혹)으로 구성돼 있다.
- 60) 제4부 2장은 1. 楊鎬를 변호할 수 없다(양호의 류성룡 비난, 丁應泰의 양호탄핵, 류성룡은 왜 양호를 변호하지 않았는가), 2. 선조-거적자리에서 황제처분 기다리다(丁應泰의 반격-조선의 곤욕, 君父이신 明황제에게 올리는 글월, ‘왜를 섬기지도 높이지도 않았습시다, 祖宗 칭호 쓴 이 無知妄作-죄주옵소서, 柳成龍의 바른 건의, 조선이 무슨 죄를 그토록, 선비의 글은 4백년 뒤도 읽는다)로 구성돼 있다.
- 61) 제4부 3장은 1. 류성룡 공격 당하다(李爾瞻-권력의 틈새를 노리다, 류성룡 추천자-모두 ‘치절이나 빠는 무리들’이라는 상소문, 류성룡-공론을 저버리면 아니됩니다), 2. 李元翼-아무도 류성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이원익, 李恒福과 李德

이 글의 각주에서 『위대한 만남』의 장절 구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제1부 1장부터 제4부 3장 마지막까지 그 목차를 훑어보면 이 저서에 담긴 내용의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일람(一覽)할 수 있다. 동시에 『징비록』과 『위대한 만남』 두 저서의 원문을 읽고 싶은 욕구가 절로 생겨날 것이다.

송복 교수는 서애 류성룡 연구의 인문, 사회과학적 지평을 확장하는 데 화살을 당겼고, 연구에도 깊이 참여해 왔다. 그는 서애 류성룡이 왜 ‘문제적 개인’이며, 무엇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사와 사회에 소환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지를 설파하고 연구해 왔다. 그리고 류성룡 연구의 확대 심화를 위해 2018년 1월 ‘서애연구회’를 발족시켰고,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법문사, 2019)을 출간했다. 2019년 12월 ‘서애학회’를 창립하였고,⁶²⁾ 2020년 5월 학회지 『서애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여 2023년 9월 현재 제7권까지 발간해왔다. 창간호부터 제7권까지에는 모두 54건의 논문이 실려 있다. 서애학회는 2020년부터 매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해왔고, 국내외 관련 지역 답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2023년 9월 13일 서애학회를 사단법인 서애학회로 전환시키는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하였다.⁶³⁾ 이러한 류성룡

馨, 李舜臣-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다니), 3. 같은 날 류성룡은 파직되고 이순신은 죽다(自彊波와 依明波, 선조는 왜 이순신을 죽이려 했는가, 가장 위대한 만남-류성룡과 이순신), 4. 류성룡-표표히 떠나다(너무 오래 있었다, 조선의 ‘권력’은 이데올로기였다, 그는 권력을 ‘이념화’하지 않았다. 다시는 서울 오지 않고 기록을 남기다, 한 편의 시가 말해주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62) 서애학회의 창립 목적은 1. 서애 류성룡의 인품, 소통과 공감 능력, 사상과 리더십, 개혁 정신, 애민사상, 당시 국내외 상황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 류성룡 저작들 등에 대해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연구 활동, 2. 『징비록』에서 드러나는 징비 사상을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걸쳐 확장하는 연구 수행, 3. 연구 참여 학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와 협력 증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63) 서애학회를 사단법인화하는 학술대회 및 창립 총회에서(프레스센터) 송복 교수는 고문으로 추대되고 서재진 전 통일연구원장을 제2대 학회장, 이진규 미래인력연구원 이사장을 후원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연구와 서애학회의 창립 및 활동은 사실 송복 교수의 기념비적 저서,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지식마당, 2007)에 기초하고 있다.

2. 위대한 만남, 류성룡 리더십과 임진왜란 연구의 사회학적 의의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4일 왜적이 침략을 개시한 이후 1598년 11월 18일까지 전개된 만 6년 7개월의 전쟁이다. 이른바 7년 전쟁을 서애 류성룡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 그 역사적 증언과 기록이 『징비록』이다. 송복 교수는 『징비록』을 읽으면 ‘그때의 내’가 참으로 부끄러워진다고 고백한다. “그 정직한 기록 때문에 『징비록』은 우리의 가슴을 전율케 한다. 『징비록』의 요체는 모든 것은 ‘내 탓’이요, ‘적은 내 안에 있다’이다. 왜군의 만행도 명군의 행패도 모두 ‘내 탓’이다.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적에 대한 화살은 그 다음이다. 그 정신이 4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더 징비(懲毖)한다.”⁶⁴⁾

송복 교수는 『서애전서』에 나오는 각종 상소문, 문이(文移) 등 공문서 549건을 정밀하게 읽고 세밀히 해부하여, 임진왜란은 왜적(倭敵)과 명군(明軍)의 전쟁임을 밝혀 내었다. 침략군에 맞설 힘이 없는 나라, 그래서 피동적으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나라, 그것이 조선의 실정이었다는 것이다. 오직 바다에서만 왜와 조선의 전쟁, 정확히는 왜와 이순신의 전쟁이었다고 해석하였다. 그 당시 조선 조정은 정부로서의 기능을 전혀 작동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순신의 전쟁 수행에 방해만 되는 ‘걸림돌 정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임진왜란은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외로운 싸움이고, 육지에서는 류성룡의 분골

64) 송복 2011, 조선은 왜 망하였나: 임진왜란과 류성룡, 징비록에 답이 있었다, 서울: 일곡문화재단, 24쪽. 이 책은 송복 2007,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 서울: 지식마당(약칭 위대한 만남)의 축약본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송복 2011, 조선은 왜 망하였나, 이 책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쇄신'이었다고 한다. 이순신의 전략이 '조선과 왜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면, 류성룡은 '왜와 명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었음을 밝혀 내고 있다.

송복 교수는 임진왜란과 류성룡의 구국활동에서 역사적으로 특기해야 할 것으로 특히 두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압록강행이 아닌 함경도행의 문제이다. 선조 역시 두 왕자처럼 생포되었을 것이고 조정의 충신들 또한 생포되었을 것이다. 함경도행을 끝까지 막아낸 류성룡의 역할과 관철이 없었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존립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는 압록강을 건너가 '명(明)에 내부(內附)하자'는 논란이다. 공간적으로 내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들어가 '붙어 살자'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그 나라에 속해 '그 나라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그때까지 조선은 비록 명의 속국이라는 명목적 지위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는 독립국이었던 데 비해 내부(內附)는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류성룡은 '조선 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절규했고 끝내 내부론(內附論)을 종식(終熄)시켰다.⁶⁵⁾ 내부론을 끝까지 반대했던 류성룡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조정의 인물 모두 '무서운 결과에 대해 거론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을 것으로 송복 교수는 평가한다.

국력 증강이든 전쟁 수행이든 그 핵심 관건은 '넉넉한 군량(軍糧)' 확보다. 임진왜란에서도 '군량은 우리 군대의 식량이자 명군(明軍)의 식량이며 굶주린 백성의 식량'이다. 송복 교수는 이 군량 전쟁에서

65) 이 때의 일을 이항복은 그의 『手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수습차 公(류성룡)과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공은 ‘어찌 이런 중대사(내부하는 일)를 졸지에 결정할 수 있느냐’고 했다. ‘만일 명으로 간다는 말이 알려지는 날에는 민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누가 그것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그때 나는 공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왕이 명으로 간다는 말이 잘못 퍼져 민심이 수습할 길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나는 비로소 공의 앞을 내다보는 슬기에 감복하였다.” 송복 2011, 34-35쪽에서 재인용.

류성룡이 중책을 맡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고 평가한다. 군량 확보와 운송, 군마(軍馬)와 사료(飼料)의 확보 및 공급 등을 맡아 전쟁 뒷받침을 효율적으로 해낸 인물이 류성룡이란 것이다. “들판엔 왜병들이 불을 질러 한 치의 풀도 남기지 않았습시다. 그 참혹함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시다. 명나라 대군이 행군 중인데도 군량과 마초는 모두 떨어졌습시다. 신은 가슴을 치고 답답해 울부짖어도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형편입시다. “66)란 류성룡의 절규가 전쟁에서 군량, 군마 확보의 절실함을 대변해 준다는 것이다.

송복 교수는 류성룡이 군사적 이론과 실제에서 탁월한 전략 이론가이자 군제 개혁의 실천가였음을 증명해내고 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최강의 군대에 굴하지 않고 버티며, 망하지 않고 되살아나게 한 것은 류성룡이 주도하고 성취한 대업이라 평가한다. 류성룡의 전략가로서의 진면목은 정병주의(精兵主義), 훈련 제일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더욱 정련되면 더욱 전일되는 것이다. 이는 유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분석하면 그 정밀한 부분까지 궁구하여도 혼란됨이 없으며, 반대로 합성하면 그 큰 본체까지 통합하여도 남는 것이 없다.”는 류성룡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류성룡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군제 개혁과 기능 개혁에 진력(盡力)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진왜란 1년 전에 만든 ‘기무(機務) 10조’와 정묘, 병자호란을 예측해서 만든 ‘북변헌책의(北邊獻策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나라를 방비하는 군국기무의 요체요 대설계라는 것이 송복 교수의 발견이요 재평가이다.

송복 교수는 임진왜란을 조선분할 전쟁으로 규정한다. 그 분할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협상으로 끌고 가다가 다시 전쟁으로 결판지으려 했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끝을 맺었다고 본다. 여기서 조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강대국 틈새의 약소국 입지로 보듯 유추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여긴다. 전시(戰時) 수상이었던

66) 송복 2011, 앞의 책, 54쪽 재인용.

류성룡은 조명(朝明)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하여 강화(講和) 분위기를 깨고자 했고, 명(明)에 대해서는 분할(分割)이든 역치(易置)든 ‘그 어느 것도’ 감행할 수 없도록 최대한의 외교전을 펼쳤다고 평가한다.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조선 분할과 역치’를 기필코 막아냈던 류성룡의 놀라운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류성룡은 백관을 인솔하고 명의 사헌(司憲) 앞에 섰다. 그리고 조선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파했다. 왜가 처음부터 침범하려고 하려고 하던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 조선의 불행은 그들의 음모에 조선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중국에 대해 변치 않고 의를 지키기 위한 것, 특히 우리 임금의 왕위에 오른 이후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펼쳐냈다.”⁶⁷⁾ 이 글의 원문은 『징비록』 본문에 실려 있다.

송복 교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우리가 어떤 우리로 존재할지를 묻고 있다. 아마도 ‘한민족의 우리’가 아닌, ‘중국화된 우리’ 혹은 ‘일본화된 우리’로 존재하지 않았을까고 상정해 보기도 한다. 임진왜란에서 멸망하지 않고 오늘의 우리로 존립 존속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류성룡과 이순신,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고 본 것이다. 『징비록』은 이 류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을 ‘사전적(事典的)으로 적으면서 서사적(敘事的)으로 쓰고 있다’⁶⁸⁾고 크게 평가하였다. 이순신이 노랑 앞바다에서 최후를 맞던

67) 명 황제의 사신 사헌은 조선을 떠나기 직전 선조에게는 “류성룡의 남다른 충성심과 독실한 인의는 중국의 문무백관과 장수들이 모두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왕은 참으로 현명한 재상을 두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류성룡에게는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적이 해를 끼친 것은 열레빗과 같고, 명나라 군사가 해를 끼친 것은 참빗과 같다’고, 그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류성룡은 이데 대해, “옛말에 이르기를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서는 가시나무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어찌 작은 소란과 침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한다. 송복 2011, 앞의 책, 128-29쪽 재인용.

68) 송복 2011, 위의 책, 167-68쪽 참조.

1598년 11월 18일, 류성룡도 영의정에서 파직되는 ‘일치라면 기묘한 일치이고, 운명이라면 기이한 운명’이라고도 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류성룡은 파직되던 다음날 행장을 꾸려 서울을 떠났다. 떠나면서 말없이 한 편의 시⁶⁹⁾를 남겼다. 그리고 1607년 죽는 날까지 다시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엄청난 저작을 남겼다. 죽기 3년 전에 『징비록』의 저술을 마무리했고, 『진사록』 『군문등록』 『근폭집』 등은 은퇴 후에 정리되어 나왔다. 송복 교수는 이에 대해 “서울을 떠나 10년이 채 못되는 사이 이룩한 저술들의 핵심은 선대의 전철을 철저히 징계하고 후대의 후환을 철저히 경계시키는 것”⁷⁰⁾이라고 평가했다. 그 핵심 요체는 바로 ‘자강’으로서, ‘우리가 날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류성룡 저작의 핵심이라고 결론지었다.

3. 류성룡 리더십 연구틀로서의 ‘심덕중용’ 리더십

송복 교수의 기념비적 연구서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은 조선조 리더십 연구의 일환으로 집필했다고 했다.⁷¹⁾ 여기서 그가 류성룡 리더십의 새 모형으로 제시했던, ‘서애정신, 류성룡의 심덕 중용리더십’ 등에 대해 고찰하고, ‘심덕중용 리더십’이 서애 류성룡 리더십으로서

69) “전원으로 돌아가는 길 삼천리/ 벼슬살이 나라 깊은 은혜 사십년/ 도미천에 발 멈추고 바라보네 남산/ 그 남산빛 옛모습 그대로이네.(田園歸路三千里/ 帷幄深恩四十年/ 立馬渡迷回首望/ 終南山色故依然)” 송복 교수는 이 시에 대해, “‘옛모습 그대로’의 그 남산의 ‘변함없는 모습’, 그것은 바른 눈(正眼)이고 바른 잣대(正尺)다. 그 바른 눈 바른 잣대로 인간을 보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본다. 그 인간이 펼치는 역사는 끝없이 부침한다. 흥망성쇠가 서로 이어간다. 그것을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옛 모습 그대로’의 그 변함없는 모습이 응시한다.”고 해석한다. 송복 2007,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 454-55쪽.

70) 송복 2011, 앞의 책, 172쪽.

71) 2007년 10월 중순 당시 송복 교수의 다짐은, ‘다음 차례는 우암 송시열과 석파 이하응을 읽고 쓸 예정’이라고 했다. 그 시대 그 ‘역사의 神’을 만날 수 있는 한 리더십 연구를 이어가려는 그의 의지는 어떻게 진전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⁷²⁾ 송복 교수는 두 개의 리더십을 제시하여 권능의 리더십과 심덕의 리더십으로 구분한다. 권능 리더십은 외면적 리더십이고, 심덕 리더십은 내면적 리더십이다.

1) 외면적 리더십

류성룡의 경우, 왜군과의 대치, 명군(明軍)과의 교섭에서 보인 임진. 정유 양란에서 수행한 그의 역할은 외면적 리더십이다. 왜군과의 싸움을 가능한 피하려는 명군의 전투기피증, 명 사신들의 오만과 독선, 조선이라는 속국에 대한 멸시, 명군 장군들의 조선군에 대한 행패와 횡포, 침략군 이상으로 조선 백성을 약탈하는 소위 구원군으로서 명(明)나라 병사들의 양민수탈과 야만적 행위, 이를 무마하고 극복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고군분투의 전(全) 과정은 모두 리더로서 류성룡의 외면이며 외면적 리더십이다.

조선군 내의 장수 발탁과 적재적소 배치, 속오군 등 군제개편과 초(哨), 기(旗), 대(隊), 오(伍) 등으로 나눠 사(司)를 만드는 군조직 재편, 공명첩(功名帖)으로 소의 계층을 끌어들여 전쟁 참여도와 협조심 강화, 최대 난관인 군량미 조달과 확보, 의심 많은 왕의 심기 일전과 불안 해소 노력, 이리저리 갈린 조신(朝臣)들 간의 화합 조화와 관리들의 사기 진작, 이 모든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궈낸 류성룡의 업적과 공과(功過) 역시 공간적으로는 나라 안이며 조정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 해도, 이것은 외면으로만 기록되고 외면으로만 관찰된 리더십이다. 이같은 측면은 류성룡 아닌 다른 리더의 경우에도, 그 리더십은 ‘외면적 리더십’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없다.

72) 송복 2020, “서애정신이란 무엇인가”, 서애연구 창간호, 서애학회; 송복 2020, “류성룡의 중용리더십”, 서애연구 제2권, 서애학회를 참조. 이하의 논의는 이 두 논문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이러한 개념들을 적용하여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2) 내면적 리더십

리더의 내면 세계로서 그 내면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리더의 ‘내면적 리더십’이다. 외면적 리더십이 그 업적과 공과를 절대적으로 리더의 ‘권능’에 의거해 달성해 간다면, 그에 맞서는 내면적 리더십의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리더의 ‘심덕(心德)’, 권능의 리더십에 대비되는 ‘심덕의 리더십’이다. 심덕이란 리더의 내면세계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리더 ‘마음의 덕’이다. 그 덕(德)은 올바름이며 선함이며 인도(人道)에 합당한 마음. 그러면서 너그러움이며, 인자함이며, 은혜로움이며, 그로 하여 남을 경복(敬服)케 하는, 관(寬), 인(仁), 은(恩), 경(敬)의 마음작용이다. 이런 마음 상태며 마음 작용의 리더는 한결같이 도량이 크고 아량이 넓다는 높임을 받는다. 도량은 그 마음 헤아림이 깊고도 큰 것을 말하고, 아량은 그 마음 쓰임이 너그럽고도 자애로운 것을 일컫는다.

3) 심덕 리더십의 중요성

심덕의 리더십은 현실정치나 실제 정책에서는 중용으로 재생(再生)되고 중용으로 재현(再現)되며 재활(再活)한다. 심덕은 중용이고, 심덕의 리더십은 중용의 리더십이다. 문제는 오로지 중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에서도 드러난 적이 없는 심덕이 어떻게 중용을 만들어 내는가이다. 심덕과 중용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내지 선택적 친화력(selective affinity)을 밝혀내는 것이다. “현실의 실생활에서 심덕은 왜 중용으로 나아가고, 중용은 어째서 심덕을 발판으로 해서 구해지는가. 둘의 상호관계 내지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 중용의 리더십은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가, 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중용의 가치를 말하고 혹은 중용의 덕을 칭송하고, 그리고 중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송복 교수의 문제의식이 유학사상과 리더십의 관점에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류성룡 리더십 모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는 향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

하다. 송복 교수가 되풀이 주장하는 ‘류성룡 리더십의 모형’은 ‘심덕 중용의 리더십’이다. 그는 당파싸움(오늘날의 정파투쟁, 정당간 싸움)을 하면서도 중용을 하는 정치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한 존재로서의 ‘류성룡의 중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떤 형태를 띠었는가를 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심덕이 근거하는 바를 좇는 것이고, 그 심덕을 『중용』에 의거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서 『중용』의 요지 내지 핵심은 ‘성(誠)’. 이 ‘성(誠)’에는 ‘용(容)’과 ‘공(公)’이 수반된다고 정리한다. 이 성(誠). 용(容). 공(公) 세 개의 키워드로써 류성룡의 심덕 리더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려 했던 것이다. “류성룡의 행적은 그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매사 ‘성’으로 행하고 ‘성’으로 전심(專心)하고 있다.”는 것이 송복 교수의 강력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향후 류성룡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선 성(誠), 용(容), 공(公)의 이념형적 성격과 중용리더십의 실재를 살펴야 하고, 동시에 류성룡의 생애와 활동을 전기사적(傳記史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송복 교수는 류성룡의 일생을 한글자로 표현하면 단연코 ‘성(誠)’이라고 본다. 조선조 정치인들 중 ‘성(誠)’ 하나로 평한다면, 류성룡은 이 ‘성(誠)’의 전형적 인물로서 ‘성’의 본보기이며 ‘성’의 존재라는 것이다. ‘성’이란 정성이고 참됨이고 거짓없음이다. 성실(誠實), 성의(誠意), 성심(誠心), 이 모두 마음이며 뜻이며 행동에 정성스럽고 착하고 거짓이 없음을 나타낸 말이다. 『중용』에서 ‘성(誠)’은 하늘의 도(天之道)이다. 그만큼 ‘성(誠)’은 『논어』의 ‘인(仁)’처럼 존송된다. 이 하늘의 도인 성을 온 정성을 다해 행하는 것을 ‘사람의 길(人之道)’라 하고, ‘사람의 길(人之道)’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이 다섯 가지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성(誠)’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중용』에서 보듯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고, 누구나 또 하고 있는 평범한 길이다. 1)박학지(博學之), 2)심문지(審問之), 3)

신사지(愼思之), 4)명변지(明辯之), 5)독행지(篤行之)가 바로 이 다섯 가지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자.

1)박학지(博學之)는 널리 읽고 넓게 배우는 길이다. 정상적인 학문을 하려면 성리학도 하고 양명학도 하고 고증학도 하고, 기타 다른 학문도 널리 넓게 두루 섭렵해야 한다는 것이 사서(四書) 『중용』의 지론이다. ‘성(誠)’은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를 공부함으로써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고집하는 세계보다 훨씬 다른 높고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2)심문지(審問之)는 자세히 상세히 따져서 묻는 것이다. 심문지는 박학지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널리 넓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면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에 앞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그리고 깊은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런 의문을 좇아 큰 물음을 던지는 것, 그것이 곧 ‘성(誠)’이며 ‘성(誠)’을 품는 길이다. 3)신사지(愼思之)는 신중(愼重)히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이다. ‘신(愼)’은 삼가 조심한다는 것이고 ‘중(重)’은 입을 무겁게 해 쉽게 열지 않는다는 의미다. 생각 혹은 사고에 신중이 없으면 앞의 박학지도 심문지도 그 뜻과 효과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박학지하고 심문지해도 신사지하지 않으면 닭은 공이 무너지고 10년 공부가 무위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 ‘신사지’는 하나가 된다. 4)명변지(明辯之)는 명확히 판별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사물간의 차이를 분별하고 인사(人事), 사람의 행동 및 생각의 이해(利害)와 시비(是非), 선악과 의불의(義不義)를 명백히 판별하는 것이다. 5)독행지(篤行之)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쏟으며 성실히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誠)’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선(善)해진다. 둘째, 명(明)해진다. “성(誠)하면 명(明)이 오고 그것이 성(性)이다. 명(明)하면 성(誠)하다. 그것이 교(教)다. 성(誠)이 곧 명(明)이고, 명(明)이 바로 성(誠)이다.”(『중용』) 나아가 성(誠)과 선(善)은 천부적인 성(性)이고 고(明)은 인위적인 교(教)이다. 성(誠)과 명(明) 사이에는 누군가의 가

르침, 즉 교(敎)가 있어야 성(誠)이 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성(誠)하면 명(明), 즉 명철(明哲)해진다는 것이다. 명철은 밝고(明) 밝음(哲)이다. 마음에 어두움이 완전히 가시고 한없이 밝고 밝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성(誠)하면 명(明)이 되는 것, 밝고 밝은 마음 만큼, 세상 또한 있는 그대로 거울에 비치듯 마음에 비치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진단하고 관찰하는 눈 또한 밝고 정확해서, 사실대로 정확히 밝게 보는 것만큼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미래 예측도 바르고 확실해진다. 성(誠)하면 이렇게 명(明)도 함께 하는 것, 이른바 『중용』에서 말하는 자성명(自誠明)이다. 거기에는 이론으로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함이 있다. 그래서 명(明)이 수반된 성(誠)의 지도자 역시 누구보다 미래 통찰력이 깊은 리더십을 발휘한다.

둘째는 류성룡 심덕중용 리더십의 제2의 키워드며 그 요소는 용(容)이다. ‘용(容)’은 ‘성(誠)’의 하위 개념이면서 실천 개념이다. 마음에 가득찬 ‘성(誠)’은 일과 당면해선 ‘용(容)’과 ‘공(公)’을 실현하고 실천한다. ‘용(容)’은 관용(寬容)이고, 공자가 일이관지(一以貫之)로서 강조했던 ‘충서(忠恕)’의 ‘서(恕)’로서 용서(容恕)라고 볼 수 있다. ‘용’의 많은 의미들 중, ‘성(誠)’과 결부 심하여덕중용의 측면에서 핵심 개념은 관용(寬容)이다. 관용은 무엇보다 자신을 넘어서서, 좋은 싫든 자기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의지를 극복하여 타인을 수용(受容)하고 포용(包容)한다.

중화(中和)에서 희로애락이 이미 마음에 나타난 상태면 그 마음작용의 조절은 그만큼 어렵다. 격화된 호오(好惡), 그 마음의 작용이나 나 개인의 그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공(公)’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념과 당파의 맞줄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세고 굳게 자신을 포박할 때, 그 절체 절명의 상황에서 ‘관용’을 생각하고 관용을 부르짖는다. 극한 상황에서 타자를 용서하고 용사(容赦)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 관용은 개인 관계에서든 공적 영역에서

든 리더십의 시작이자 끝, 알파와 오메가다. 관용은 성(誠)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 성함으로써 선(善)을 회복하고 밝은 마음의 눈이 뜬 명(明)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진다. 마음에 어둠이 가신 명(明)이 왔을 때 비로소 용서의 용(容)을 갖고, 나와 다른 남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관용(寬容)’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관용의 마음이야말로 중용이다.

셋째 류성룡 심덕중용 리더십의 또다른 키워드는 ‘공(公)’이다. ‘공(公)’은 공평(公平)이고 공익(公益)이고 공론(公論)이다. 공평 대신 공정을 쓰기도 한다. 공평무사(公平無私), 공정무사(公正無私). 공정 매지 공평은 무엇을 위한 혹은 무엇을 향한 공정인가? 그것은 바로 공익이다. 공익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이익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다. 공정 공익에 이어 ‘공(公)’은 공론(公論)이다. ‘공(公)’은 공인(公人)의 소관이다. 공인은 어떻게 공을 실현할 것인가? 앞의 ‘용(容)’에서와 같이 오직 ‘성(誠)’이다. ‘성’하지 않으면 공과 사는 혼동된다. 성(誠)함으로써 공인은 공의 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사인은 사의 자리에서 자기 소임을 다한다. 성(誠)은 흔들림없이 온 정성을 다 쏟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 성은 바로 선(善)이다. 성(誠)함으로써 선(善)이 된 것이다. 택선고집(擇善固執), 그래서 마음은 어둠이 가시고 밝아진다. 성함으로써 마음의 착함(善)과 그 마음의 밝음(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르고 공평하고 치우침이 없는 본래의 공(公)이 심덕(心德)이 되고 중용이 행해지는 것이다.⁷³⁾

어떻든 “천하 국가도 고르게 다스릴 수 있으며, 높은 벼슬도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도 밟을 수 있지만 중용은 행할 수 없다.”⁷⁴⁾는 『중용』의 말을 환기시켜 본다. 이 구절은 중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용’을 이상으로 삼는 유학사상 자체의 어려움을 가리키는 듯하다.⁷⁵⁾

73) 송복 교수가 류성룡 리더십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했던, 그 핵심 개념들로서 제시했던 ‘심덕중용’의 개념 등에 대한 설명을 요약한 것은 여기까지이다.

74) 『중용』 9장. “子曰, 天下國家可均也, 爵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庸不可能也.”

75) 이광호 2001, “성학십도를 펴내며”, 성학십도, 서울: 홍익출판사, 5-9쪽 참조.

V. 맺음말

작금의 시대는 오픈 AI와 챗GPT의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이 도도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획기적으로 쇄신(刷新)할 구조변동과 문명 대변혁의 시대적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과 국면에서 지식인들 내지 전문가들은 대부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굳이 나서서 욕먹지 않으려는 소심함으로 눈치보며 저울질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구조변동과 변혁의 와중(渦中)에서 송복 교수는 결연한 태도와 정직한 자세로 문명 비판의 선봉에 서왔다. 인문학적 고뇌와 철학 사상적 풍부성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사회 공론장에서 그는 인문학적 성찰과 지평을 심화 확대시켜 왔다. 오늘날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들이 판치고 정파성이 난무(亂舞)하는 활극 공론장’에서 그는 학자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 왔다. 존경받는 원로의 뒤흔힘과 다산 정약용의 사의재(四宜齋)와도 같은 마땅함을 지향하고 실천해 왔다.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혜안과 총체적 분석력을 갖춘 인텔리겐차의 힘’을 지니고 진정한 진리 탐구와 지혜의 회복을 위해 진력해 오기도 했다.

송복 교수는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를 통해 인(仁), 덕(德), 효(孝), 예(禮), 군자(선비) 등 유학의 핵심 개념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해석하고, 그 사회학적 함의를 새롭게 풀이하였다. 동양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근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접합되고 통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탐구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만남』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의 성격을 사회과학적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국난극복의 지도자, 서애 류성룡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그 위대성을 크게 평가했다. 『징비록』 등 그 저술들의 핵심은 ‘선대의 전철을 철저히 징계하고 후대의 후환을 철저히 경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핵심 요체는 바로 ‘자강’으로서, ‘우리가 날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이라고 결론짓기도 했다.

수많은 칼럼 등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특혜와 책임’을 한국 사회 선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특혜와 책임』이란 저서로 나타나기도 했다.

『고문진보』에 퇴지(退之) 한유(韓愈)의 ‘반곡으로 돌아가는 이원을 전송하는 서(送李愿歸盤谷序)’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을 마치려니 심원 송복 교수의 온화한 얼굴이 떠오르며 이 글 또한 새롭게 상기되었다. “반곡(盤谷)의 가운데여 그대의 집이요, 반곡의 땅이여 그대가 농사짓는 곳이로다. 반곡의 샘물이여 씻을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반곡의 막힘이여 누가 그대와 이곳을 다투겠는가. 아늑하고 깊으니 넓어 용납할 수 있고, 빙둘러 굽어 있으니 갔다 돌아오는 듯하도다. 아! 반곡의 즐거움이여 즐거움이 장차 다함이 없으리로다. 호랑이와 표범이 자취를 멀리함이여 교룡이 도망하여 숨고, 귀신이 수호함이여 불길한 것을 꾸짖어 금하도다. 마시고 또 먹음이여 수(壽)하고 강녕(康寧)하니, 부족함이 없음이여 다시 무엇을 바랄까. 내 수레에 기름치고 내 말에 꼴을 먹여 반곡에서 그대 따라 나의 여생 마치도록 상양(徜徉, 노닐다)하리라.”⁷⁶⁾

심원 송복 선생께서는 2022년 삶을 회고하면서, “흐르는 물처럼 살았다. 보(淤)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고, 도랑(거,渠)을 새로 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흐르면 흐르는 대로, 고이면 고이는 대로, 물길따라 살았다.”고 했다.⁷⁷⁾ 『논어』 20편 전 구절 중에서 자한(子罕)편에 나오는 “흘러가는 것들이 모두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가는구나.(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이 글을 쓰는 이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심원 선생께선 40년 넘게 북한산을 오르내리며 그 산기슭에서 생활해 오셨다. 그 산을 함

76) “盤之中 維子之宮, 盤之士 維子之稼. 盤之泉 可濯可浴, 盤之阻 誰爭子所. 窈而深 廓其有容, 繚而曲 如往而復. 嗟盤之樂兮 樂且無央. 虎豹遠跡兮 蛟龍遁藏, 鬼神守護兮 呵禁不祥. 飲且食兮 壽而康, 無不足兮 奚所望. 膏吾車兮 秣吾馬, 從子于盤兮 終吾生以徜徉.”

77) 송복 2022, “송복 자전적 에세이: 중용, 그리고 천명”, 철학과 현실, 174쪽.

게 오르내리며 술과 한담(閑談)과 문학을 즐기던 친구(李泰根)가 죽었을 때도 ‘서자여사’를 되뇌며 눈물이 물처럼 흘렀다고 했다. 옆에 계시던 사모님께서 ‘나 죽었을 때 그렇게 물어보지’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죽을텐데’라며 고인 물처럼 눈물이 그토록 쏟아졌다고도 했다.⁷⁸⁾ 이제 심원 선생께서는 북한산 자락 그 ‘반곡(盤谷)’의 마을에서 저 ‘흘러가는’ 물들을 바라보시며 월정 하경희 선생과 함께 이곳 저곳을 상양(徜徉)하시기를 소망해 본다.

지난 8월 폭염 속에서 강릉 선교장에 들렀을 때 그 ‘활래정(活來亭)’ 앞 연못 연꽃을 바라보며 심원 선생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주자(朱子)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 중에 “반 이랑 모난 연못에 거울 하나 열렸는데/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돌아다니네/ 묻노니 어찌서 그렇게 맑을 수 있는가 하니,/ 맑은 물 흘러나오는 근원 있어서라 하네.(半畝方塘一鑒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라는 구절이 있다. 심원 송복 선생은 갈길 몰라 헤매이는 이 혼돈한 시대에 우리들의 ‘천광운영(天光雲影)’이요, 수양공부하는 이들의 ‘원두활수(源頭活水)’⁷⁹⁾ 같은 분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서의 심원 선생께서는 학문의 긴수작(緊酬酌)과 한수작(閑酬酌)을 조화시키고 ‘중용과 천명’의 삶을 지향하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시리라.

78) 송복 2022, “송복 자전적 에세이: 중용(中庸) 그리고 천명(天命)”, 철학과 현실, 서울: 철학과 현실사174-75쪽.

79) ‘천광운영’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곳에 갖추어져 있음을 비유한다. ‘원두활수’는 『맹자』 이루어편의 다음 구절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근원에 좋은 물이 철철 흘러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여 구덩이가 가득차진 뒤에야 나아가 사해에 이르니 학문에 근본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참고문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주역』.

불, 피터(Bol, Peter K.) 2011, 역사 속의 성리학(Neo-Confucianism In History, 김영민 옮김), 서울: 예문서원.

성백효 1994, 현토완역 고문진보(후집),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송복 1999/2003, 동양적 가치란 무엇인가, 서울: 생각의 나무/ 지식마당.

송복 2007, 서애 류성룡: 위대한 만남, 서울: 지식마당.

송복 2011, 조선은 왜 망했나: 징비록에 답이 있었다, 서울: 일곡문화재단.

송복 2014,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서울: 가디언

송복 2016, 특혜와 책임, 서울: 가디언.

송복. 서재진 편, 2019, 서울: 법문사.

송복 2020, “서애정신이란 무엇인가”, 서애연구 창간호, 서애학회.

송복 2020, “류성룡의 중용리더십”, 서애연구 제2권, 서애학회.

송복 2023, 송복 자전적 에세이: 중용 그리고 천명, 서울: 철학과 현실사(출간예정, 철학과 현실에 연재한 글).

송복. 하경희 1997, 논어서예전, 서울: 삼보인쇄공사.

송복. 하경희 2013, 맹자글귀전, 서울: 월간서예.미술신문.

송복 외 2006, 당시서예전, 서울: 인사동문화.

신정근 2013, “사람에 대한 꿈을 꾸다, 논어”, 인문학명강, 서울: 21세기북스.

실링, 크리스, 필립 A. 멜러(Shilling, Chris and Philip A. Mellor) 2013, 사회학적 야망(The Sociological Ambition, 2001, 박형신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유홍준 2006, 김정희: 알기 쉽게 간추린 완당평전, 서울: 학교재.

이광호 2001, “성학십도를 펴내며”, 성학십도, 서울: 홍익출판사.

- 정학섭 2015, “표준사회학적 연구와 동양사회사상적 공부하기의 통합”,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4호, 동양사회사상학회.
- 정학섭. 2018a, “퇴계 경사상의 사회학적 함의”, 한국전통사상의 사회과학적 복원(2) 자료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 정학섭. 2018b, “후기 근대사회와 유가사상의 지평”, 대한철학회 국제학술대회(2018.9.14., 경북대학교) 자료집, 대한철학회.
- 정학섭. 2018c, “뿌리뽑힌 한 성리학자의 문학적 저항과 지평”, 한국사회학회 2018학술대회 동양사회사상분과 발표자료집(2018.12.8.), 한국사회학회. 동양사회사상학회.
- 정학섭 2018d, “지속과 변화: 표준사회학적 인식과 동양사회사상적 상상력의 융합”, 사회사상과 문화 21권 4호, 동양사회사상학회, 1-31쪽.
- 정학섭 외 2014, 사회학적 관심의 동양사상적 지평, 서울: 다산출판사.
- 최석만/정학섭 외 2016, 현대사회의 위기와 동양사회사상, 서울: 다산출판사.
- 陳舜臣 2007, 논어교양강의(論語抄, 서은숙역, 파주: 돌베개.

정학섭은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서 국문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으며, 1985년 이후 2021년까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4-06년 캐나다 UBC에 visiting scholar로 다녀오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동양사회사상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국제퇴계학연구회 부회장으로 있다. 관심 분야는 동양사회사상, 조선시대 철학과 사상, 결혼과 가족의 사회학 등이며, 『한국의 사회사상』(공저), 『사회학적 관심의 동양사상적 지평』(공저), 『현대사회의 위기와 동양사회사상』(공저), 『사회학이론의 구조』(공역) 외에 최근 「친밀성의 위기와 순수지속의 사상적 성찰」, 「수양공부와 출사의 변증법」, 「사물의인화의 Friendship과 친밀성의 전이」,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Friendship의 성격」 등과 같은 일련의 글을 발표해 오고 있다.

E-mail: hark@jbnu.ac.kr

(2023.09.20.접수; 2023.10.01.수정; 2023.10.01.채택)

DOI: <https://doi.org/10.17207/jstc.2023.9.26.3.2>

Life, Value Orientation, and Disciplines of Professor Song Bok

Chung, Hark-Serp. Emeritus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Professor Song Bok, Oriental Value Research, Great Meeting,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Ryu Seong-ryong(柳成龍) Leadership, Jungyong(中庸) Leadership, Calligrapher

[Abstract]

Professor Song Bok (宋復) (1937~) was born in Gimhae, Gyeongsangnam-do, studied Oriental classics from an early age, and graduated from Busan High Schoo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llege of Literature and Political Science. His nickname(號) is Simwon(心遠). After studying sociolog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he earn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n 1975, he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of sociology at Yonsei University and retired at retirement age in 2002. Eleven independent books, eight compilations, three translations, and hundreds of papers and columns were published and produced. Based on MoonSaCheol(文史哲), he conducted research, lectures, and writing activities, holding two calligraphy exhibitions with his wife, and holding calligraphy exhibitions at the time with his hobbyists to open the horizon of "pleasure and enjoyment" as a calligrapher.

In the midst of structural changes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society (in vortex), Professor Song Bok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criticizing civilization with determined attitude and honest attitude. In the public sphere of Korean society, where humanistic anguish and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abundance are disappearing, he has deepened his humanistic

reflection and horizons. In today's "public sphere where fake news and distorted information are dominated and political factions are rampant (亂舞), he has fulfilled the calling of scholars and watchmen. He has pursued and practiced the dignity of a respected elder, such as the dignity and private resources. He has worked hard to search for true truth and restore wisdom with "the power of intelligentsia with insight and total analysis based on humanistic literacy."

Professor Song Bok explained the core concepts of studying abroad, such as benevolence, virtue, filial piety, courtesy, and sage, in a social (scientific) manner through 『What is Oriental Value』. It was interpreted and its sociological implications were newly resolved. It confirmed that oriental values can work as universal values, and sought and explored how they can be joined and integrat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society.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jin War(임진왜란) were newly defined in terms of social science through studies such as 『The Great Encounter』(위대한 만남). Seo Ae(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 the leader of overcoming national difficulties, was studied in detail and his greatness was greatly evaluated. The core of their writings, such as Jingbirok, stipulated that it is "thoroughly disciplining the predecessors' trains and thoroughly wary of future consequences." It was concluded that the core element was "self-strengthening," a lesson that "we must become stronger day by day." Through numerous columns, Noblesse Oblige's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have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advancing Korean society. One of the results of such discussions was also appeared in the book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특혜와 책임). He founded the Seoae Association, has published the academic journal 『Seoae Research』 and is involving in the launch of the 「Jingbi Forum」 based on the philosophy and spirit of Jingbi (懲毖).